

제3장 미산면(岬山面)

본래 남포군(藍浦郡) 지역으로서 북외면(北外面)이라 하여 성주(聖住), 조계(造溪), 상개(上介), 하개(下介), 상암(上岩), 풍년(豐年), 원침(元沈)의 7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심전면(深田面)의 거문(巨門), 수현(水絃), 용암(龍岩), 자라(者羅), 평장(平章), 대륙(大勒), 소륙(小勒), 상조(上鳥), 중조(中鳥), 하조(下鳥), 상내(上內), 하내(下內), 금당(金塘), 모항(茅項), 대삼(大三), 농소(農所), 소삼(小三), 동산(東山), 판수(判水), 내기(內基), 평촌(坪村), 신모(新茅), 신평(新豐), 심동(深洞), 발악(發岳), 태봉(胎峯), 상도(上都), 하도(下都)의 28개 동리와 홍산군(鴻山郡) 상서면(上西面)의 자명리(自鳴里)를 병합하여 아미산(峨嵋山)의 이름을 따서 미산면(岬山面)이라 하여 보령군에 편입되고, 성주(聖住), 개화(開花), 도화담(桃花潭), 풍계(豐溪), 용수(龍水), 평라(坪羅), 늑전(勒田), 봉성(鳳城), 옥현(玉峴), 은현(隱峴), 대농(大農), 삼계(三溪), 내평(內坪), 풍산(豐山), 남심(南深), 도흥(都興)의 16개 리로 개편 관할하다가 1986년 4월 1일 성주리와 개화리를 합하여 성주면으로 분할하였다. 1990~1998년에 걸친 보령댐 건설사업으로 평라리, 용수리, 풍계리, 봉성리 등 4개 마을 497가구 1985명이 이주하고 644ha가 수몰되었다.

- 북외면(北外面) : 옛 남포현 동쪽의 면. 현재의 성주면 성주리, 개화리, 미산면 도화담리, 풍계리 지역이다.
- 심전면(深田面) : 옛 남포현 남동쪽의 면. 현재의 미산면 용수리, 평라리, 늑전리, 대농리, 삼계리, 풍산리, 남심리, 내현리, 옥현리, 도흥리 지역이다. <1911, 朝鮮地誌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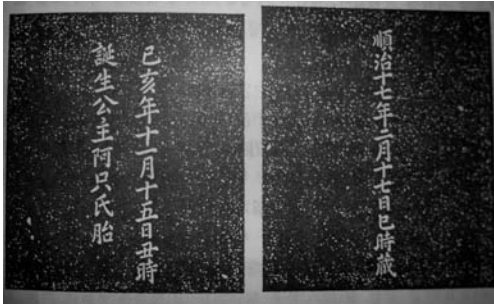
1. 남심리(南深里)

본래 남포군(藍浦郡) 심전면(深田面)의 지역으로서, 장태산(將胎山) 골이 깊으므로, 깊은골 또는 심동(深洞)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발악리(發岳里), 태봉리(胎峯里), 신평리(新豐里) 일부를 병합하여 남심리라 해서 미산면에 편입하였다.

- 가로고개 : 남심리에서 서천군 판교면 마대리(馬垔里)로 통하는 고개. 판교장을 보러 다니던 고개이다. 현재는 포장도로가 지난다.
- 가루고기 : 남심리 심동에서 판교면으로 넘는 가로고개 <1911, 朝鮮地誌資料>
- 가자굴 : 남심리 남쪽의 가로고개로 향한 큰 골짜기. 골짜기 안의 마을.
- 가자굴들 : 가자굴 안에 있는 들.
- 가재굴 : 가자굴의 다른 이름.
- 간재굴 : 남심리 서북쪽 간재재 동쪽에 있는 골짜기.
- 간재재 : 남심리 태봉 마을에서 주산면으로 통하는 고개. 포장도로가 지나감.
- 간치(良峙) : 간재재
- 갈현(葛峴) : 가로고개의 한자 표기.
- 갓모바위 : 심동 마을 서남쪽 무량굴의 위쪽에 있는 바위.
- 갯챙이 : 심동 마을 양지뜸 서남쪽 골짜기. 말박굴의 밑이다.
- 건녕굴 : 간재고개 밑에서 남쪽으로 향한 골짜기. 황새머리와 바람메굴 사이이다.
- 검바위 : 대농리 목골에서 남심리 태봉 마을로 들어가는 모룽이에 있는 바위.
- 검바위들 : 검바위 앞에 있는 들. 태봉 마을 입구의 들이다.
- 검은바위 : 검바위의 다른 이름.
- 공터 : 바람메 마을의 북쪽, 영척굴의 입구이다. 공을 치던 곳이라 한다.
- 구렁굴 : 심동 마을 양지뜸 북쪽에서 서쪽으로 향한 골짜기.
- 그이형국 : 간재재 밑 큰능굴과 날기턱굴 사이의 논. 계의 형국이라 붙은 이름.
- 깊은굴 : 심동의 우리말 이름.
- 난디굴재 : 심동 읍지뜸 남쪽 배암박굴의 위에 있는 골짜기. 판교면 난디굴로 통합.
- 날기턱굴 : 태봉 서쪽에 있는 봉우리. 간재굴에서 북쪽으로 뻗은 봉우리이다.
- 남포심동 : 심동 마을을 비인현 심동 마을과 비교하여 부르는 이름.
- 대섰밭 : 심동 마을 양지뜸과 텃밭 사이 산 밑을 일컫는 지명.
- 도리채박굴 : 심동 마을 읍지뜸의 동쪽, 채독배기의 남쪽 골짜기.
- 도채박굴 : 도리채박굴의 다른 이름.
- 두리봉 : 풍산리와 판교면과의 경계가 되는 산. 안가자굴의 위쪽이다.
- 마당산 : 심동 읍지뜸의 남서쪽에 있는 봉우리. 산봉우리가 평평하여 붙여진 이름.
- 마장산(馬場山) : 마당산의 다른 이름. 옛날 말을 길러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말바위 : 갓모바위의 다른 이름.
- 목골재 : 태봉 마을에서 목골로 넘어가는 고개.

- 바라메 : 태봉 남쪽에 있는 마을. 바라메재를 통하여 심동(深洞) 구렁굴과 통한다.
- 바라메재 : 바라메에서 구렁굴로 통하는 고개.
- 발산(發山) : 바라메와 태봉 마을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
- 발악(發岳) : 바라메의 한자 표기.
- 발악리(發岳里, 발악피) : 남심리 바라메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방아다리 : 심동 양지뜸과 음지뜸 사이의 논.
- 배나무굴 : 간재고개 동쪽 밑에서 서북쪽으로 뻗은 골짜기. 날기턱굴의 서쪽이다.
- 배암박굴 : 심동 마을 남쪽의 골짜기. 음지뜸의 남쪽이다.
- 부채박굴 : 심동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위에 절터가 있다.
- 부처박굴 : 부채박굴의 다른 이름.
- 불목쟁이 : 심동 마을 입구 흘애비쭈뿌리의 동남쪽 산 모퉁이.
- 비모굴 : 심동 마을 남쪽, 배암박굴 안에 있는 골짜기. 큰굴과 승주굴 사이이다.
- 쇠몽지 : 심동 마을 양지뜸과 음지뜸 사이의 골짜기. 부채박굴의 밑이다.
- 승주굴 : 심동(深洞) 남쪽 배암박굴 안에 있는 골짜기. 비모굴의 동쪽에 있다.
- 심굴 ; 간재고개 바로 밑에 있는 골짜기.
- 심동(深洞) : 남심리 남서쪽에 있는 중심 마을. 과거에는 지픈골이라고 불렀다고 하나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은 심동이라는 이름밖에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한다.
- 심산 : 바라메 마을 서남쪽, 심동의 서쪽에 있는 337.5m 산봉우리.
- 안가자굴 : 남심리 남쪽 가자굴에서 동쪽으로 뻗은 골짜기.
- 양지뜸 : 심동 마을의 서쪽 부분.
- 영척굴 : 바라메 마을 뒤쪽의 골짜기.
- 옷샘 : 심동 마을 구렁굴과 채독배기 사이에 있는 샘.
- 윗가자굴 : 안가자굴의 위쪽 골짜기. 두리봉의 밑이다.
- 윗바라메굴 : 바라메의 서남쪽 골짜기. 질마재로 향한다.
- 윗바라메재 : 바라메에서 구렁굴을 통하여 심동 양지뜸으로 통하는 고개.
- 음지뜸 : 심동 마을의 동쪽 부분.
- 작대봉 : 장대봉의 다른 이름.
- 장고개 : 심동 마을에서 채독배기, 가재굴을 통하여 판교장에 다니던 고개.
- 장대봉 : 심동 마을 서남쪽에 있는 산봉우리. 높이 366.5m이며 삼각점이 있다.
- 장생이 : 불목쟁이 동쪽 지역, 대농리 방맹이의 남쪽이다.
- 장수바위 : 심동 남쪽 장대봉 동쪽에 있는 바위.

- 장아밭골 : 남심리 안가자굴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 풍산리 밧주쟁이와 통합.
- 장태산(將胎山) : 장대봉의 다른 이름.
- 절터 : 심동 마을 남쪽 부채박굴의 중턱에 있다.
- 정자나무 : 바랑메 마을 입구에 있다.
- 질마재 : 바랑메 마을 서남쪽에 있는 산 능선. 봉우리 두 개가 있어 붙여진 이름.
- 질안자리 : 텃말과 대곶밑 사이에 있는 논.
- 채독배기 : 심동 마을 음지뜸 동쪽에 있는 골짜기. 도리채박굴의 밑이다.
- 칼바위 : 장대봉 꼭대기에 있는 바위.
- 큰골 : 심동 마을의 남쪽에 있는 봉우리.
- 큰능굴 : 건녕굴의 다른 이름.
- 큰들 : 심동 마을 입구의 넓은 들.
- 태봉 : 남심리의 서북쪽 마을. 대농리와의 경계 지역이다. 마을에 있는 태봉산에 조선 제18대 임금인 현종의 장녀 명선공주(明善公主 1659~1673)의 태(胎)를 묻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아이를 낳으면 태(胎)를 소중히 여겨 전국 방방곡곡에 묻었다. 먼저 작은 단지 안에 태를 넣고 밀봉한 후, 큰 단지 안에 넣어 돌로 된 큰 통(태함)에 돈과 함께 다시 넣어 땅에 묻어 무덤처럼 만든다. 이때 태의 주인공을 기록한 태지석을 함께 묻고, 무덤 앞에는 태의 주인공을 기록한 비(아지비)를 세웠다.
 명선공주는 1659년 11월 15일 아버지 현종임금과 어머니 청풍김씨 사이에 태어났는데, 약 3개월 후인 1660년 3월 2일 이곳 남심리 태봉산에 태를 묻었다. 명선공주는 12세인 1671년에 맹만택과 혼인을 정하였으나 1673년 미처 혼례를 치르기 전에 병으로 사망하였다. 1929년 전국에 있는 태실을 서울 서삼릉으로 옮길 때 태항아리와 태지석을 옮겨 묻었다. 돌로 만든 태함과 아지비는 현장에 남아 있었으나 근래에 모두 없어졌다.
- 태산 : 태봉 마을 서쪽에 있는 明善公主의 태를 묻은 봉우리. 173.8m이다.
- 텃말 : 텃말의 다른 이름.
- 텃말 : 심동 마을 입구의 마을. 흘애비쭈부리와 대곶밑 사이에 있다.
- 태두레 : 태봉 마을 태산의 다른 이름.
- 흘애비쭈뿌리 : 남심리 입구의 산 모퉁이. 심동, 태봉, 바랑메로 통한다.
- 황새머리 : 간재고개 밑에서 서남쪽으로 뻗은 골짜기. 배나무굴의 맞은편이다.



명선공주 태지석



태봉 마을(2006)

2. 내평리(內坪里)

본래 남포군(藍浦郡) 심전면(深田面)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내기리(內基里)와 평촌(坪村)을 병합하여 내평리라 하여 보령군 미산면에 편입하였다.

- 각시봉 : 내평리 안태 마을 동남쪽 봉우리.
- 갯고개 : 안태 구석뜸 남쪽의 산사면을 통칭하는 말. 강산재의 서쪽을 통칭한다.
- 고이바위 : 새양산 정상 남쪽에 있는 바위.
- 고지달 : 윗정굴 동쪽 골짜기. 황새목골과 서태굴 사이에 있는 골짜기.
- 구석뜸 : 안태 마을 남쪽에 남북으로 들어선 마을. 마을회관이 있다.
- 구지다리 : 고지달의 다른 이름.
- 금성굴 : 내평리 서쪽 동달봉의 동쪽 골짜기. 동달별의 북쪽이다.
- 꿩골 : 안태 위뜸의 동쪽에 있는 골짜기. 돼지굴의 북쪽에 있다.
- 꿩바위 : 꿩골 위에 있는 바위.
- 내기(內基) : 안터의 한자 표기.
- 단굴 : 당굴의 다른 이름.
- 달산 : 내평리 서쪽에 있는 마을. 동달봉의 동남쪽, 미산면사무소가 들어와 있다.
- 달산내 : 안태 아래뜸과 달산 마을 사이에 있는 내.
- 당굴 : 채알이 남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독사굴 : 뒷굴 남쪽의 작은 골짜기. 독사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동달별 : 내평리 서쪽 동달봉의 동쪽 사면. 경사가 급하다.
- 동달산 : 내평리 서쪽 삼계, 늑전리의 경계가 되는 산.

- 동달이들 : 중매와 동달봉 사이에 있는 들.
- 동산절재 : 안태 구석뜸에서 동산절 새터로 넘어가는 고개.
- 돼지굴 : 안태 위뜸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
- 두내받이 : 삼계리 관서굴 저수지 쪽에서 내려오는 내와 대농리 쪽에서 내려오는 내가 합쳐지는 곳.
- 뒷메 : 안태 마을 구석뜸 동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 독사골과 뒷메 사이에 있다.
- 뜨메기재 : 안태 마을 위뜸에서 윗정굴로 넘어가는 큰 공판재의 다른 이름.
- 뜨메기재 : 윗정굴에서 내평리 뜨메기로 넘어가는 재.
- 물만골 : 뜨메기재 남쪽에 있는 골짜기.
- 방아보 : 중매와 병목골 사이에 있던 보. 물레방아에 물을 대던 보이다.
- 벗나무골 : 정굴에서 새양산 쪽으로 뺀 골짜기. 순난네골과 보십날 사이이다.
- 병목골 : 내평리 서쪽 동달봉의 동쪽 골짜기.
- 보십날 : 새양산에서 정굴쪽으로 뺀 산 능선. 벗나무골과 지체박굴 사이에 있다.
- 부엉배 : 내평리 입구에 있는 바위. 아랫정굴의 남쪽에 있다.
- 빗독거리 : 내평리 입구 좁은목의 새양산 밑 부분. 비가 서 있어서 붙여진 이름.
- 사당굴 : 큰돼지굴과 역정굴 사이의 골짜기.
- 새양산 : 내평리의 북쪽 끝. 내평리와 늑전리, 내현리의 경계가 되는 산.
- 생배 : 새양산의 다른 이름.
- 서낭댕이 : 삼계리와와의 경계 점늬모탱이에 있었다. 상엿집이 있는 곳이다.
- 서낭댕이 : 윗정굴에서 내평리 뜨메기로 넘어가는 뜨메기재에 있던 성황당.
- 수랑들 : 삼계리 안태 앞에 있는 들을 통칭하는 말.
- 순난네골 : 정굴에서 새양산 쪽으로 뺀 첫째 골짜기. 벗나무골의 서쪽이다.
- 시양산 : 새양산의 다른 이름.
- 아래뜸 : 안태 마을 서쪽 부분. 김해 김 씨 가의 仁同張氏 열녀문이 있다.
- 아랫동달이들 : 동달이들의 하천 서쪽 부분.
- 아랫정굴 : 정굴의 서쪽 부분.
- 아랫정굴재 : 안태 마을 위뜸에서 정굴로 넘어가는 고개. 윗정굴의 서쪽이다.
- 안태 : 내평리 마을의 하천 동쪽 부분을 통칭하는 말. 아래뜸, 위뜸, 구석뜸으로 구성된다. 김해 김 씨, 경주 김 씨가 세거한다.
- 얹산 : 내평리 안태 마을 동쪽 산.
- 양지뜸 : 안태 마을의 북쪽 부분. 위뜸과 아래뜸을 통칭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위뜸의

남서쪽 부분을 말한다.

- 역정굴 : 안태 마을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각시봉으로 향해 있다.
- 열너문 : 안태 아래뜰에 있는 김해 김 씨 가의 仁同張氏 열너문. 남편이 중병에 걸리자 허벅지 살을 도려내어 먹여 생명을 연장했다고 전한다.
- 오가모탕이 : 안태 마을 아래뜰의 남쪽 끝 부분.
- 옷샘 : 요갓아피와 강산재 사이의 샘.
- 요갓아피 : 안태 구석뜰 남쪽, 강산재 북쪽에 있는 골짜기. 논과 밭으로 이용된다.
- 윗동달이들 : 동달이들의 하천 동쪽 부분.
- 위뜰 : 안태 마을 동북쪽에 길게 들어선 마을이다.
- 윗정굴 : 정굴의 동쪽 부분.
- 윗정굴재 : 안태 위뜰에서 정굴로 넘어가는 고개. 큰공판재와 아랫정굴재 사이.
- 육굴 : 안태 마을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역정굴과 소란너머 사이에 있다.
- 음지뜰 : 안태 마을의 남쪽 부분. 구석말을 통칭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구석말의 북쪽 부분을 말한다.
- 작은공판재 : 윗정굴 서태굴에서 물만골로 넘어가는 고개. 이 고개를 통하고 뜨메기재를 넘어 뜨메기로 넘어간다.
- 작은돼지굴 : 안태 위뜰 동쪽, 돼지굴 안의 동북쪽으로 뻗은 골짜기.
- 장구메 : 안태 마을 동남쪽에 각시봉에서 내민 산줄기. 높이 192.0m이다.
- 장적태 : 채알이와 서태굴 사이에 있는 골짜기.
- 점늬모탕이 : 내평리와 삼계리의 경계지역. 두내받이의 남쪽이다. 점 넘어 모룽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서낭맹이라고도 한다.
- 정굴 : 내평리 안태 마을의 북쪽 즉, 새양산과 중메 사이에 있는 큰 골짜기를 통칭하는 말. 논과 밭이 많다.
- 좁은목 : 내평리의 입구 늬전리로 통하는 좁은 목.
- 중메 : 내평리 안태 마을과 정굴 사이의 산. 동남쪽에 안태의 중심 마을이 있다.
- 지체박굴 : 윗정굴에서 새양산 쪽으로 향한 골짜기. 보십날과 물만골 사이이다.
- 채알산 : 채알이의 다른 이름.
- 채알이 : 안태 마을 위뜰 동북쪽에 있는 산능선. 높이 191.2m이다.
- 코바위 : 안태 마을 아래뜰의 동쪽 산기슭에 있는 바위. 여러 개의 바위가 있다.
- 큰공판재 : 안태 위뜰에서 윗정굴로 넘어가는 고개. 작은공판재와 뜨메기재를 넘어 뜨메기로 넘어간다. 이 재를 뜨메기재로 부르기도 한다.

- 큰돼지굴 : 안태 위뜸 동쪽, 돼지굴 안의 동남쪽으로 뻗은 골짜기.
- 평촌(坪村) : 미산면 내평리 안터 이외 지역 <1911, 朝鮮地誌資料>
- 함박굴 : 중매 서쪽 골짜기. 방아보의 동쪽에 있다.
- 황새목골 : 윗정굴 물만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안태 위뜸(1995)



안태 음지뜸(2008)

3. 늑전리(勒田里)

본래 남포군(藍浦郡) 심전면(深田面) 지역으로서, 골이 깊고 밭이 많으므로 굴앗, 구리앗 또는 늑전(勒田)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늑리(大勒里)와 소늑리(小勒里)를 병합하여 늑전리라 해서 보령군 미산면에 편입하였다. 마을의 동쪽 좁은목 부분은 보령댐에 수몰되었다.

- 가침재 : 동달봉의 서북쪽 골짜기이다. 작은 논다랭이가 많아 샷갓을 벗어놓고 세어보니 하나가 부족하더라는 전설이 있다.
- 각시바위 : 늑전리 마을 입구 명지모랭이에 있는 바위.
- 간노배 : 늑전리 마을 입구 남쪽에 있는 산의 끝.
- 개바티 : 동달이 마을과 큰동달이 마을 사이에 있는 논.
- 구레논 : 늑전리 마을 중심에 있는 들.
- 굴앗 : 늑전의 순수 우리말 이름.
- 늘색이 : 좁은목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
- 대늑(大勒) : 큰늑전의 한자 표기.
- 대늑리(大勒里) : 큰늑전의 한자 표기.
- 대늑리(大勒里, 구레밭) : 큰늑전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독쟁이 : 벗낭굴과 각시바위(불근배) 사이의 들.
- 독쟁이재 : 독쟁이와 작은늑전 사이의 고개.
- 동달봉 : 동달이 남동쪽에 있는 395.8m 봉우리. 늑전리, 삼계리, 내평리의 경계.
- 동달산(東達山) : 동달봉의 다른 이름.
- 두내바지 : 늑전 마을 입구. 늑전에서 내려오는 내와 대농리 쪽에서 내려오는 내가 합쳐지는 곳. 보령댐에 수몰되었다.
- 두내바지보 : 늑전 마을 입구 두내바지에 있던 보. 보령댐에 수몰되었다.
- 둥메 : 뒷메의 다른 이름.
- 뒷굽말 : 작은늑전의 북쪽 부분. 육녀굴의 밑이다.
- 뒷메 : 작은늑전의 서북쪽 산. 움말과 뒷굽말 사이에 있다. 높이 146.5m이다.
- 마초장굴 : 영월이굴과 고래기 사이의 골짜기.
- 매범이재 : 늑전리 남쪽 동달봉 동북쪽 줄기에 있는 고개. 벗낭굴의 맞은 쪽이다.
- 멩덕봉 : 멩택이의 다른 이름.
- 멩택이 : 늑전리, 평라리, 주산면 동오리의 경계가 되는 산. 벌의 멩덕과 같아 붙여진 이름이다. 높이 277.5m이다.
- 멩택이굴 : 큰늑전 서북쪽 멩택이 쪽으로 난 골짜기.
- 멩덕봉(明德峰) : 멩택이의 다른 이름.
- 멩지모랭이 : 늑전리 마을 입구의 좁은 부분. 매범이재의 서쪽이다.
- 벗낭굴 : 작은늑전과 좁은목 사이에 있는 골짜기.
- 벗낭굴재 : 벗낭굴과 작은늑전 사이의 골짜기.
- 북개봉 : 늑전리의 서남쪽 끝에 있는 봉우리. 높이 307.3m이다.
- 불근배 : 늑전리 마을 입구 각시바위의 다른 이름.
- 사당굴고랑 : 동달이 마을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 삼형제바위 : 애기산(여귀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
- 새들보 : 좁은목에 있던 보. 평라리 새들에 물을 댔다. 보령댐에 수몰되었다.
- 샘실재 : 고래기와 마초장굴 사이의 능선을 통하여 삼곡리 큰샘실로 통하는 고개.
- 생박굴 : 늑전리와 내평리의 경계 지역에 있는 골짜기. 좁은목의 동쪽이다.
- 서낭댕이 : 늑전리 마을의 중앙부 멩지모랭이 서쪽 길옆에 있었다.
- 서낭댕이 : 작은늑전 서북쪽 장구멩이에 있었다. 그곳의 지명이기도 하였다.
- 서죽굴재 : 작은늑전에서 평라리 서죽굴로 통하는 고개.
- 소늑리(小勒里) : 작은늑전 마을, 구랏에서 나온 이름이다.

- 소라티 : 큰늑전 동쪽의 낮은 산. 우봉 이 씨의 묘가 있다.
- 소축재 : 서죽굴재의 다른 이름.
- 신전재 : 늑전 고래기에서 주산면 삼곡리 작은 샘실로 넘어가는 고개.
- 아랫말 : 작은늑전의 동남쪽 부분.
- 애기산 : 벗낭굴과 좁은목 사이의 산. 평라리와 경계를 이룬다.
- 양지뜸 : 큰늑전의 동북쪽 부분.
- 여귀산 : 애기산의 다른 이름.
- 영월이골 : 큰늑전과 동달이 마을 사이에 서쪽으로 난 골짜기.
- 영월이재 : 영월이골에서 주산면 삼곡리 동실로 통하는 고개.
- 용오리골 : 영월이골의 다른 이름.
- 용오리재 : 영월이재의 다른 이름. 삼곡리산성(토성)이 마치 용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된다.
- 이용어리재 : 영월이재의 주민 발음.
- 움말 : 작은늑전의 서쪽 부분. 뒷메의 서남쪽 기슭이다.
- 월티(月峙) : 영월이고개의 한자 표기.
- 육녀굴 : 작은늑전 뒷굽말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은골 : 동달이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음지뜸 : 큰늑전의 남서쪽 부분.
- 작은늑전 : 늑전리의 북쪽 마을. 큰늑전의 동북쪽이다. 움말, 뒷굽말, 아랫말로 구성 되어 있다.
- 작은벗낭굴 : 작은늑전과 큰늑전 사이에 있는 벗낭굴의 서쪽으로 향한 골짜기.
- 장구맥이 : 서죽굴재의 다른 이름. 장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 좁은목 : 늑전 마을 입구의 좁은 골짜기에 있던 마을. 보령댐에 수몰되었다.
- 지린내미 : 늑전리 마을 입구에서 내평리와의 경계지역에 있던 좁은 논을 지칭하던 이름. 즉 좁은목에 있던 논이다. 보령댐에 수몰되었다.
- 지린내미재 : 독쟁이에서 지린내미로 넘어가는 산줄기의 끝에 있는 낮은 고개.
- 처장굴 : 동달이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 은골과 동달이 마을 사이에 있다. 교회가 있는 골짜기이다.
- 천질바위 : 동달봉 서북쪽, 즉 처장굴 위쪽에 있는 바위.
- 청석바위 : 늑전리 입구의 남쪽, 지린내미 서쪽 냇물 속에 있는 바위. 수몰되었다.
- 청석보 : 지린내미 서쪽, 청석바위 북쪽에 있던 보. 보령댐에 수몰되었다.

- 치불재 : 큰늑전 양지뜰에서 작은늑전 읍말로 넘어가는 고개.
- 큰늑전 : 늑전리의 중심 마을. 작은 늑전과 동달이 마을 사이에 있다.
- 큰동달이 : 동달이 마을과 큰늑전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
- 큰벗낭굴 : 작은늑전과 큰늑전 사이에 있는 큰 골짜기.
- 판서굴재 : 동달이 마을 남쪽에 있는 고개. 삼계리 판서굴로 통한다.
- 평나무재 : 동달이 마을에서 동달봉 북부 능선으로 오르는 고개. 내평리로 통한다.
- 평쟁이재 : 작은늑전에서 평라리 육굴로 넘어가는 고개.
- 협항(狹項) : 좁은목의 한자 표기.



좁은목(1995)



작은늑전(2008)

4. 대농리(大農里)

본래 남포군(藍浦郡) 심전면(深田面)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삼리(大三里)와 농소리(農所里)를 병합하여 대농리라 해서 보령군 미산면에 편입하였다.

- 간산보 : 문두실 서쪽 공동묘지 아래에 있는 보. 쇠재 마을 앞뜰에 물을 낸다.
- 개논 : 대농리 북쪽 풍산리와의 경계지역에 있는 들.
- 건넌들 : 대농리 마을의 내건너 동쪽에 있는 들. 방맹이들이라고도 한다.
- 공동묘지 : 대농리 북동쪽 문두실 서쪽에 있는 공동묘지.
- 공동묘지논 : 공동묘지의 서쪽에 있는 논.
- 난리굴 : 청역굴 서쪽에 있는 뒷굴에서 당집말랭이 쪽으로 향한 작은 골짜기.
- 농소리(農所里, 못골) : 대농리 못골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당곡(堂谷) : 당굴의 한자 표기.

- 당굴 : 대농리 북쪽 삼계리와 경계지역에 있는 마을. 청역골의 북쪽에 있다. 옛날 당집의 밑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 당굴앞 : 당굴 마을 앞 들.
- 당굴재 : 당굴 마을과 청역골 아래뜰으로 통하는 고개.
- 당집 : 당굴 마을 서쪽, 당집말랭이의 남동쪽 7부 능선에 있다. 돌담이 쳐져 있어 당집의 흔적은 있으나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은 제 지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므로 최소한 일제시대에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 당집말랭이 : 당굴 마을의 서쪽 237.5m 산봉우리. 당집의 서북쪽 봉우리이다.
- 대삼(大三) : 조선 시대 쌍계지역을 나누어 대삼리(大三里)와 소삼리(小三里)로 표기 하였다. 小三里는 삼계리 소삼에 현재까지 지명으로 남아 있으나 大三里는 남아있지 않다. 일제시대 초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그린 지형도의 大三里 위치로 보아 대농리의 목골과 청역골을 통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대삼리(大三里) : 미산면 대농리 목골, 청역골 지역 <1911, 朝鮮地誌資料>
- 두내받이 : 대농리 동쪽 끝. 남심리 쪽에서 내려오는 내와 풍산리 쪽에서 내려오는 내가 만나는 곳.
- 뒷골 : 청역골의 서쪽 골짜기. 주걱봉과 매봉재의 동쪽에 있다.
- 마살피 : 대농리 당굴과 대농리 절골 사이의 산 능선.
- 매봉재 : 대농리 서쪽에 있는 307.6m 봉우리. 남심리, 주산면과의 경계이다.
- 매봉재 : 문두실 북쪽 삼계리 은산뜰과의 경계가 되는 산. 높이 189.5m이다.
- 목골 : 대농리의 남쪽에 있는 마을로 대농리의 중심 마을이다. 양지뜸, 음지뜸으로 나누어진다. 옛날 이곳에 못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며, 우물을 팔 때 못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한다. 주민들은 보통 ‘목골’이라고 부른다.
- 못골 : 목골의 다른 이름. 주민들은 보통 ‘목골’로 발음한다.
- 문두실(文頭室) : 대농리 북동쪽 끝 마을. 풍산리와의 경계에 있다.
- 박만이 : 방맹이골의 다른 이름. 박씨 만석꾼이 살았기 때문에 붙여졌다고 한다.
- 방맹이산 : 대농리 동쪽 풍산리 갯골과 경계가 되는 산.
- 방맹이재 : 풍산리 갯골에서 남심리 가자골로 넘어가는 고개.
- 산제당 : 목골 마을의 서쪽 즉, 산제당 밑에 있는 집을 말함.
- 산제당 : 목골과 남심리 태봉 마을 사이에 있는 산. 목골 마을의 산제당이 있었다.
- 삼거리 : 청역골 마을의 옛 대농초등학교 북동쪽. 삼계리, 남심리, 풍산리로 통하는 삼거리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삼거리들 : 대농리의 중앙부 삼거리 앞에 있는 들.
- 삼박굴 : 청역굴 서쪽에 있는 230.3m 봉우리. 매봉재의 남동쪽이다.
- 서낭댕이 : 두내반이 남쪽 방맹이산의 북쪽 끝에 있다. 풍산리와 의 경계이다.
- 서당굴 : 뒷굴에서 서북쪽으로 뺀 골짜기. 큰굴과 난리굴의 사이에 있다.
- 쇠재고랑 : 문두실에서 삼계리 쇠재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는 골짜기.
- 쌍계 : 과거 내평, 삼계, 대농, 풍산, 남심의 5개 리를 통칭하던 이름이다.
- 쌍겨 : 쌍계의 다른 이름.
- 아래뜸 : 청역굴의 동쪽 마을. 옛 대농초등학교의 서쪽이다.
- 양지뜸 : 목골의 북쪽 부분.
- 여수골 : 당굴 마을의 서쪽 골짜기. 당집말랭이의 서쪽이다.
- 옷샘 : 뒷굴 안의 큰굴에 있는 샘. 옷이 올랐을 때 씻으면 나왔다고 한다.
- 위뜸 : 청역굴의 서쪽 마을. 뒷굴의 입구에 있다.
- 음지뜸 : 목골의 남쪽 부분.
- 작은굴 : 뒷굴의 남서쪽에 있는 봉우리. 매봉재의 밑이다.
- 작은방맹이 : 방맹이산 서쪽에 있는 두 골짜기 중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절굴재 : 당굴에서 삼계리 절굴로 넘어가는 고개. 마살피의 서쪽에 있다.
- 정주나무 : 목골의 입구. 청역굴에서 목골로 가는 모퉁이에 있다.
- 주걱봉 : 대농리 서북쪽 끝에 있는 347.1m 봉우리. 삼계리, 주산면과의 경계이다.
- 지곡(池谷) : 목골의 한자 표기.
- 참나무보 : 목골과 방맹이산 사이의 하천에 있는 보.
- 청룡곡(靑龍谷) : 청역굴의 한자 표기.
- 청역굴 : 대농리의 중심 마을. 옛 대농초등학교가 있는 마을. 아래뜸과 위뜸, 삼거리로 구분된다.
- 청역굴뒷들 : 청역굴 서쪽에 있는 들. 뒷굴에서 물을 댄다.
- 큰굴 : 청역굴 뒷굴 안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 주걱봉의 밑이다.
- 큰방맹이 : 방맹이산 서쪽에 있는 골짜기 중 남쪽에 있는 골짜기.
- 태봉재 : 청역굴과 남심리 태봉 마을 사이에 있는 산능선. 남심리 태봉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평장리천(平章里川, 조분목이니) : 미산면 대농리, 삼계리 내평리 방향에서 내려오는 내. 내평리 입구가 ‘좁은목’이므로 좁은목을 통과해서 내려오는 내라는 의미로 붙여진 것이다. <1911, 朝鮮地誌資料>

- 황새나루쟁이 : 청역굴 서쪽 삼박굴과 태봉재 사이의 낮은 부분. 이곳에는 옛날 소나무가 우거졌었고, 황새가 서식했다고 한다.



대농초등학교(2006)



목골 정자나무(2007)

5. 도화담리(桃花潭里)

본래 남포군(藍浦郡) 북외면(北外面) 지역으로서, 도화담(桃花潭)이 있으므로 도화담(桃花潭)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상암리(上岩里)를 병합하여 도화담리라 해서 보령군 미산면에 편입되었다. 1947년 4월 7일까지 미산면사무소가 있었다.

- 개화교 : 성주면 개화리와 도화담리 사이에 있는 다리.
- 골재장 : 도화담 중심 마을 북쪽의 골재 채취장
- 꽃봉 : 도화담리의 북쪽 산봉우리. 피깁봉의 북쪽이며 이깁이골의 서쪽이다.
- 피깁봉 : 도화담리의 중심 마을 서북쪽에 있는 426.7m 산봉우리.
- 누운백발 : 도화담리의 북쪽 큰감나무골과 골재장 사이에 이르는 지역.
- 덕대산 : 도화담리 남쪽 즉, 안골 남서쪽 풍계리와 경계가 되는 산. 덕대는 남의 광산에서 채굴권을 얻은 것을 말한다.
- 도풍사택 : 도화담리의 서쪽 사기장굴 밑에 있는 옛 광산 근로자의 사택. 1995년 8월 23일 수해를 당한 보령댐 수몰민들이 거주하였었다.
- 도풍탄광 : 도화담리의 중심마을 서북쪽 산밑밭에 있던 옛 탄광.
- 도화담1리 : 1반 상바위, 2반 아래뜸, 3반 안골.
- 도화담2리 : 1·2반 중뜸, 3반 불당골, 4반 도풍.
- 도화담교 : 도화담리에서 풍계리로 통하는 다리.
- 돌정자들 : 옛 도화담초등학교 서쪽에 있는 들.

- 돌정자보 : 도화담리 서쪽, 사기장굴 남쪽, 비끼내에 있는 보(淤). 옛 도화담초등학교 서쪽의 돌정자들에 물을 낸다.
- 동대산골 : 도화담리의 남쪽 아미산골에서 남쪽으로 뻗은 골짜기.
- 돼지굴 : 불당굴 골짜기의 중간쯤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 위에 중바위가 있다.
- 두내받이 : 도화담리 중심 마을 남쪽, 성주에서 내려오는 내와 외산면에서 내려오는 내가 합쳐지는 곳.
- 만수산(萬壽山) : 도화담리의 북쪽 끝에 있는 산 봉우리. 높이 498.7m이다.
- 멩덕봉 : 도화담리의 동북쪽에 있는 벌 멩덕처럼 생긴 봉우리. 장숙골의 북쪽에 있다. 부여군 외산면과의 경계이다.
- 무량너머골 : 불당골의 북쪽에서 무량사 쪽으로 난 골짜기.
- 미산초중교 : 안골 서쪽에 있다. 2006년 3월 미산중학교, 도화담초등학교, 대농초등학교가 통합되어 현대화학교로 세워졌다.
- 바랑굴 : 불당골 북단에서 만수산으로 향한 골짜기. 바른골과 부랑너머골 사이.
- 바른골 : 도화담리 북쪽 불당골의 최북단에 있는, 만수산으로 향한 골짜기.
- 박효자문 : 상바위 마을에 있는 밀양 박 씨 효자문. 朴承健과 朴世胄의 효자문.
- 백생이굴 : 도화담리의 북쪽에 있는 불당골의 서쪽으로 난 골짜기.
- 북주개봉 : 도화담리 남쪽 아미산 북쪽의 봉우리. 높이 638.5m이다.
- 불당골 : 도화담 중심 마을 북쪽에 있는 큰 골짜기. 채석장과 레미콘 공장이 있다.
- 불당굴 : 도화담리의 북쪽 마을. 아래뜰과 이어져 있다.
- 비끼내 : 성주면 성주리에서 발원하여 성주면 개화리, 미산면 도화담리를 통하여 보령댐으로 흐르는 하천. 도화담리의 서쪽에서 비끼내라고 부른다.
내의 흐름 방향이 이 구간에서 비껴 흐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된다.
- 비끼내다리 : 개화교를 주민들이 부르는 이름. 비끼내에 있는 다리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비끼내모퉁이 : 도화담리 서쪽 즉, 개화교 동쪽의 산 모퉁이.
- 사기장굴 : 도화담리의 서쪽, 도풍사택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산밀밭 : 도화담리 서남쪽, 도풍탄광이 있는 골짜기. 께깎봉으로 향한다.
- 산암사 : 도화담리의 남쪽, 아미산골에 있는 절이다. 석굴암을 재현할 예정이다.
- 삼화광업소 : 도화담리 북쪽 불당골에 있던 광산.
- 상바위 : 도화담리의 동쪽 국도 40호선의 북쪽 산기슭에 있는 마을.
- 상바위 : 선바위의 다른 이름.

- 상암(上岩) : 상바위의 한자 표기.
- 상암리(上岩里) : 상바위 마을의 다른 이름.
- 상암천(上巖川, 도화담니) : 외산면 쪽에서 흘러오는 내. <1911, 朝鮮地誌資料>
- 새내보 : 도화담교 동쪽 바로 아래에 있는 보. 풍계리의 새내들에 물을 공급한다.
- 석정보 : 돌정자보의 다른 이름.
- 선바위 : 도화담리 서쪽, 상바위 마을 북쪽 산능선에 있는 바위.
- 성풍사택 : 도풍사택의 다른 이름.
- 성풍탄광 : 도풍탄광의 다른 이름.
- 소도독골 : 안골 남쪽 덕대산과 형제봉으로 둘러싸인 골짜기.
- 솔봉 : 도화담리 서쪽 함박굴의 동쪽 능선에 있는 봉우리. 외산면과 경계를 이룬다.
- 신평사택 : 도풍사택의 다른 이름.
- 신평탄광 : 도풍탄광의 다른 이름.
- 아래뜸 : 도화담리의 중심 마을. 도화담리의 가운데에 위치하며 국도 40호가 통과한다. 미산초·중학교와 지서, 농협 등의 기관이 위치한다.
- 아미산 : 도화담리 마을 남쪽에 있는 산. 보령시와 부여군의 경계를 이룬다.
- 아미산골 : 도화담리 남쪽 즉, 안골의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 안골 : 도화담리의 남쪽 내건너 마을.
- 용못 : 용연보 위에 있는 깊은 웅덩이.
- 용바위들 : 옛 도화담초등학교 서남쪽 들. 즉, 도로 남쪽에 있는 들.
- 용보 : 돌정자보의 다른 이름.
- 용보들 : 도화담리 동쪽 상바위 마을 남쪽에 있는 들. 용보는 외산면에 있다.
- 용연보 : 옛 도화담초등학교 남쪽에 있는 보.
- 이깁이굴 : 도화담리의 북쪽에 있는, 불당골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 호령굴과 백생이굴 사이에 있다. 꽃봉으로 향한다.
- 작은장숙굴 : 도화담리 동쪽 상바위 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장군바위 : 도화담리 남쪽 아미산에 있는 바위.
- 장군바위골 : 도화담리 남쪽 안골의 가장 깊은 골짜기. 장군바위로 통한다.
- 장시골 : 장숙굴의 다른 이름.
- 재꽃날 : 도화담리의 북쪽 불당골 북쪽 능선. 호령굴과 바른굴 사이에 있다.
- 제비굴 : 도화담리 북쪽 불당골의 서쪽으로 난 골짜기. 백생이굴의 남쪽에 있다.
- 중바위 : 불당골 동쪽 돼지굴 위에 있는 바위.

- 작은감나무골 : 불당골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작은함박골 : 도화담리 남쪽 아미산골에서 동쪽으로 뻗은 작은 골짜기.
- 작은허리재 : 상바위 마을에서 불당골로 통하는 고개. 큰허리재의 서쪽에 있다.
- 작은홍개굴 : 불당골 골짜기의 돼지굴과 큰홍개굴 사이에 있는 골짜기.
- 큰감나무골 : 불당골의 동쪽, 작은감나무골의 북쪽에 있는 골짜기.
- 큰날 : 도화담리 남쪽 아미산골 안에 있는 능선. 장군바위골의 서남쪽이다.
- 큰장숙굴 : 도화담리의 동쪽 끝에서 명덕봉을 향한 골짜기. 골짜기 안이 넓고 평평하다. 과거 장씨네가 살았다는 전설이 있다.
- 큰허리재 : 상바위 마을에서 작은감나무골로 통하는 고개. 작은허리재의 동쪽.
- 큰홍개굴 : 불당골의 북쪽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 명덕봉의 서쪽에 있다.
- 평지터들 : 도화담리 중심 마을 남쪽에 있는 들.
- 풍년동평(豊年洞坪) : 풍년동들. 미산면 도화담리, 풍계리 풍년동, 풍계리 완성(원두머니)에 이르는 들. <1911, 朝鮮地誌資料>
- 함박골 : 도화담리 동쪽 즉, 안골의 동쪽에서 남쪽으로 향한 골짜기.
- 형제봉 : 안골 남쪽에 있는 봉우리. 높이 275.2m이다.
- 호령굴 : 도화담리 북쪽 불당골의 최북단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 이갱이굴과 바른골 사이에 있는 깊은 골짜기이다. 꽃봉과 만수산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벼루 원석을 채굴한다.
- 횡천(橫川) : 비끼내의 한자 표기. 옛날에 횡천소(橫川所)가 있었다.



새내보와 안골(1995)



도화담 전경(2008)

6. 도흥리(都興里)

본래 남포군(藍浦郡) 심전면(深田面)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상도리

(上都里), 하도리(下都里), 영흥리(永興里)와 홍산군(鴻山郡) 상서면(上西面) 자명리(自鳴里)를 병합하여 상도(上都)와 영흥(永興)의 이름을 따서 도흥리라 하여 보령군 미산면에 편입되었다.

- 가낭굴 : 도흥리 큰굴 북쪽에 있는 골짜기. 장군봉의 남쪽 골짜기이다.
- 갈미봉 : 자명 마을 북쪽에 있는 산봉우리. 417.1m이다.
- 감불 : 도흥리 으성굴 서북쪽 산능선 바로 밑 평평한 곳. 예부터 해발 350여 m 높이에 가옥이 한 채 있었다.
- 강적굴 : 자명 마을의 동북쪽 부분.
- 끝을재 : 자명 마을 끝을재굴 북쪽에 있는 고개. 부여군 내산면 금지리와 통한다.
- 끝을재굴 : 자명 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끝을재로 오르는 골짜기이다.
- 관불 : 감불의 다른 이름.
- 까치정굴 : 자명 남쪽 비득재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
- 냉굴 : 여흥 마을 북쪽, 백재굴 위쪽에서 동쪽. 즉, 월명산 쪽으로 뺀 골짜기. 해발 320m쯤에 2가구가 거주하였다. 일조량 때문에 높은 곳에 거주하였다.
- 너머뜸 : 도장굴 마을 가운데의 도랑을 중심으로 도랑 너머를 너머뜸이라고 부른다. 양쪽에서 서로 부르는 이름이다.
- 너분들 : 도장굴 남쪽 골짜기. 용칭굴과 무라나무굴 사이에 있다.
- 노적바위 : 여흥 마을 북쪽에 있는 바위. 두개가 마주보고 있는데 노적가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다락굴 : 자명 마을 위뜸 북쪽에 있는 골짜기. 논과 밭으로 개간되었다.
- 도장굴 : 도흥리의 중앙에 있는 마을. 여흥 마을의 서쪽에 있다. 마을의 가운데로 경사가 급한 도랑이 지나며 마을은 도랑의 양쪽에 있다. 마을이 위치하는 곳은 논보다 수십m 높은 언덕 위라 햇볕이 잘 든다.
- 도흥교(都興橋) : 여흥 마을 앞에 있는 다리.
- 동그래절터 : 백재 바로 밑 동쪽 골짜기에 있는 절터.
- 두리봉 : 도장굴 남쪽 산봉우리. 편박굴의 남쪽이다.
- 뒷굴 : 도장굴 서쪽에 있는 골짜기. 위에 미륵바위가 있다.
- 등너머 : 도장굴 너머뜸의 다른 이름.
- 물아나무굴 : 도장굴 남쪽 골짜기. 골짜기 위에 삭바위가 있다.
- 물아나무굴 : 강적굴 동쪽에 있는 골짜기. 작은낙고개굴과 끝을재굴 사이에 있다.

- 미륵바위 : 도장굴의 뒷굴 위쪽에 있는, 미륵처럼 생긴 바위. 옛날 이곳에 산제당이 있었는데 산제당 구들을 뚫고 솟았다고 한다. 이 바위에 정성을 들이면 아들을 낳는다고 전한다.
- 백재 : 도흥리 영흥 마을에서 외산면 가덕리로 넘어가는 고개. 높이 311.4m이다. 이곳에는 옛날 동그래절이라는 절이 있었고 고약한 중이 살아서 넘어다니는 사람을 괴롭혔었다고 한다. 그래서 100명 정도가 되어야 안심하고 넘을 수 있어서 백재라고 불렀다고 한다. 원래 부르던 이름은 뱀재이다. 요즘은 백재로 불린다.
- 백재골: 도흥리 서쪽 여흥 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를 통칭하기도 하고 백재 바로 밑의 골짜기를 말하기도 한다.
- 뱀재 : 백재의 옛 이름.
- 병목산 : 큰골 남쪽에 있는 봉우리. 높이 345.5m이다.
- 보두막재 : 자명 마을 아래뜰에서 위뜸으로 올라가는 산 모퉁이.
- 북적골 : 여흥 마을 북쪽, 백재골 위쪽에서 서쪽으로 향한 골짜기.
- 비득재 : 자명에서 까치정굴을 통하여 부여군 옥산면 상기리(上基里)로 넘어가는 고개. 포장도로가 통과한다.
- 뺨골 : 자명 남쪽에 있는 골짜기. 까치정자굴과 작은 분통골 사이에 있다.
- 삭바위 : 도장굴 남쪽 무라나무골 위에 있는 바위.
- 산적골 : 자명 마을 강적골의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상도리(上都里) : 도장굴 위뜸의 한자 표기.
- 상도리(上都里, 동장골) : 도장굴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상암고랑 : 여흥 마을 북쪽 백재골 중간에서 월명산 쪽으로 뺨은 깊은 골짜기이다.
- 생박골 : 자명 마을 강적골 북쪽에 있는 산적골에서 곧을재 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 서낭댕이 : 자명 남쪽 비득재 꼭대기에 있다.
- 아래뜰 : 도장굴 동쪽 부분. 중뜸, 너머뜸에 비하여 낮은 곳에 위치한다.
- 아래뜰 : 자명 마을의 남서쪽 부분.
- 아홉사리고개 : 비득재를 넘어 천덕산을 돌아 부여군 홍산면으로 통하는 고개. 엄밀하게 말하여 부여군 땅이지만 자명 사람들도 홍산으로 가려면 넘어야 한다. 옛날 재맹이라는 사람이 작대기를 가지고 뚫었다고 전한다.
- 안고랑 : 자명 마을 점말 북쪽에 있는 넓은 골을 통칭해서 부르는 이름이다.
- 안심 : 여흥마을 북쪽의 백재골 아래쪽에서 서쪽, 장군봉 쪽으로 향한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에는 평평하다. 절터가 2곳 있으며 과거에는 2가구가 거주하였다.

해발 250여 m까지 밭으로 개간하였다. 이곳은 일조량 때문에 높은 곳에 밭을 일군다.

- 여흥 : 도흥리 서쪽 백재골 입구에 있는 마을.
- 여흥교 : 도흥교를 주민들이 부르는 이름.
- 영흥(永興) : 여흥의 한자 표기.
- 용칭골 : 도장굴 남쪽 산 골짜기. 너분들의 서쪽이다.
- 우겹 : 도장굴 앞에서 재맹이다리에 이르는 들.
- 월명산(月明山) : 미산면 도흥리와 부여군 외산면 금계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높이 544.0m 이다. 산너머의 해발 475m쯤에는 金池寺가 있다.
- 위뜸 : 도장굴의 가운데 부분. 하천의 동쪽이다.
- 위뜸 : 자명 마을의 북쪽 부분.
- 육굴 : 여흥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 뒷굴의 서쪽 골짜기이다.
- 으성굴 : 도흥리 서쪽 끝, 봉성리와의 경계에 있는 골짜기.
- 으성굴말랭이 : 감불 남쪽의 산봉우리. 높이 364.3m이다.
- 자명(自鳴) : 자맹이의 옛 한자 표기. 과거에는 自鳴으로 표기하였으나 요즘은 自明으로 표기한다.
- 작은낙고개 : 자명 마을 접말 동쪽 골짜기.
- 작은낙고개굴 : 자명 마을 접말의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작은너덜 : 자명 마을 북서쪽 팽나무골과 큰너덜 사이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작은분통골 : 자명 남쪽에 있는 골짜기. 뺨골과 큰분통골 사이에 있다.
- 장군날봉 : 장군봉에서 도장굴 마을 가운데로 내려온 산줄기.
- 장군봉 : 도흥리와 용수리 평나리의 경계를 이루는 아미산의 한 봉우리. 높이 471.7m이다.
- 장군봉 : 월명산의 남동쪽 봉우리. 도흥리, 부여군 외산면 금지리와 경계를 이룬다. 도장굴과 자명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이다. 높이 522.9m이다.
- 재맹이 : 自明(自鳴)의 옛 이름으로 보인다. 현재 거주하는 사람은 과거에도 자명(自鳴)이라는 이름만 들어보았다고 하나 재맹이다리에 남아 있는 이름으로 보아 自明(自鳴)의 순수 우리말 이름으로 보인다.
- 재맹이다리 : 도흥리 자명 입구에 있던 돌다리. 2×2m 정도 크기의 돌다리로 옛날 재맹이라는 장사가 돌아다 놓았다고 전한다. 재맹이는 자명(自明)의 원이름이고 재맹이의 다리이기 때문에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 절굴 : 여흥 마을 북쪽 백재 아래쪽 골짜기에서 서북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안에는

넓은 완경사지가 있어 4000여 평의 경지가 있었다. 5가구의 주민이 거주하였다.

골짜기의 입구에도 완경사지는 있지만 일조량 때문에 높은 곳에 거주하였다. 해발 250여 m까지 가옥이 있었고 해발 300여 m까지 밭으로 개간되었었다. 옛날에 절이 있어서 부르는 이름이다.

- 접말 : 자명 마을의 동쪽 부분. 과거에 그릇을 굽던 점이 있었다고 한다.
- 천덕산 : 자명 남쪽 비득재 동쪽에 있는 산봉우리. 362.7m이다.
- 청벽고랑 : 자명 마을 위뜸 다락골에서 서북쪽으로 향한 작은 골짜기.
- 총각바위 : 자명 마을 가운데에 있던 바위. 도로 확장 공사로 부수어졌다.
- 큰골 : 도흥리 남쪽 병목산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 큰골 마을이 있다.
- 큰골 : 도흥리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
- 큰낙고개 : 자명 마을 강적굴 동쪽, 물이나나무골 위쪽에 있는 고개.
- 큰너덜 : 자명 마을 북서쪽 작은 너덜과 청벽고랑 사이의 작은 골짜기.
- 큰분통골 : 자명 남쪽에 있는 골짜기. 작은분통골의 북쪽에 있다.
- 팽나무골 : 자명 마을 아래뜸 북쪽에 있는 골짜기.
- 편박굴 : 도장굴 남쪽 골짜기. 무라나무골과 큰골 사이에 있다.
- 하도리(下都里) : 도장굴 아래뜸의 한자 표기.



자명 아래뜸(1995)



자명 마을 안내석(2007)

7. 봉성리(鳳城里)

본래 남포군(藍浦郡) 심전면(深田面) 지역으로, 새재고개가 있으므로 새재 또는 조령(鳥嶺), 조티(鳥峙)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조리(上鳥里), 하조리(下鳥里), 중조리(中鳥里)를 병합하여 봉성리라 해서 보령군 미산면에 편입되었다.

- 가는굴 : 상조 동지말 북쪽의 골짜기.
- 각시봉 : 하조 마을 북쪽에 있는 산. 높이 339.0m이다.
- 교동 : 하조 마을의 내 건너 옛 명덕초등학교 있던 곳. 학교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명덕초등학교가 폐교되고 미산초등학교가 들어왔다가 또다시 폐교되고 미산중학교가 들어왔다가 도화담리로 옮겨졌다..
- 내동재 : 상조 여수막골에서 옥현리 내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 대숙굴 : 하조 마을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의 위에는 절터가 있다.
- 도로재 : 중조 마을 서쪽 끝. 도흥으로 통하는 도로 동쪽에 있는 마을.
- 독쟁이재 : 상조 새재고개 남쪽에 있는 고개. 옥현리와 통한다.
- 돌앞말 : 상조의 중심 마을로 마을의 서쪽 부분이다.
- 동지말 : 상조 돌앞말과 웃말 사이에 있는 마을. 가는굴의 남쪽이다.
- 뒹박굴 : 상조 돌앞말 북쪽의 골짜기.
- 두리봉 : 상조 마을 북쪽에 있는 봉우리.
- 등덩이고랑 : 하조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각시봉으로 통한다.
- 말굽배 : 봉성리 입구 평라리와외의 경계지역. 바위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되나 지역 이름으로 통용된다.
- 매봉재 : 상조 마을 남쪽 산봉우리. 숙곳재라고도 한다.
- 명덕봉 : 상조 마을 남쪽의 산봉우리. 은현리와 경계를 이룬다.
- 벼락바위 : 상조 마을 남쪽 언고개의 밑에 있는 바위.
- 병목산 : 상조 마을 동쪽에 있는 산으로 도흥리, 부여군 옥산면과 경계한다.
- 봉성교(鳳城橋) : 봉성리 입구의 다리.
- 봉성넷갈 : 하조 마을 앞 도흥리 쪽에서 흘러오는 큰 내.
- 사당굴 : 하조 마을 서쪽 산사면을 말한다. 대숙굴의 서쪽이다.
- 사택 : 봉성리 입구 언덕 위에 있는 옛 태화탄광의 사택.
- 산수굴 : 중조 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산제당 : 죽은절굴의 위쪽 각시봉 밑에 있는 산제당 자리.
- 산제당 : 태화사택 서쪽 하조보 바로 위에 있다. 산제당이었던가 절로 바뀌었다. 원래의 산제당은 각시봉 밑에 있었다.
- 샷갓번데기 : 하조 마을의 서북쪽 산록. 완경사면(緩傾斜面)이다.
- 상조(上鳥) : 새재 위뜸의 한자 표기. 일제시대 이전부터 표기했던 이름으로 보이며 요즘은 거의 상조로 부른다. 돌앞말, 동지말, 웃말로 구성되어 있다.

- 새재 : 봉성리를 통칭하는 옛 이름. 부여군 옥산면으로 통하는 새재고개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위뜸(上鳥), 아래뜸(下鳥), 중뜸(中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새재고개 : 봉성리의 옛 이름인 새재의 어원이 된 고개이다. 봉성리 상조에서 부여군 옥산면 상기리(上基里)로 통하는 고개이다. 고개의 높이는 261.1m이다. 상조 마을의 높이가 120-130m쯤 되므로 높지는 않은 고개이다. 과거에는 통행이 많았다.
- 서낭댕이 : 중조 도로재 마을 북쪽 용바위 옆에 있었다.
- 서낭댕이 : 하조 마을 앞산의 서쪽 끝에 있었다. 현재는 없어지고 옆에 있는 큰 바위에 주민들이 위하고 있다.
- 서당굴 : 상조 윗말의 동북쪽 골짜기.
- 세집매 : 중조 마을의 서쪽 부분. 집이 3채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숙굿재 : 상조 마을 남쪽 산봉우리. 옥현리와 경계를 이룬다. 매봉재라고도 한다.
- 아래뜸 : 새재 마을의 서쪽 부분을 부르던 옛 이름.
- 양지뜸 : 중조 마을의 중심 마을. 도로재와 청룡 마을 사이에 있다.
- 언고개재 : 상조 돌앞말에서 벼락바위를 통하여 은현리로 넘어가는 고개.
- 여수막골 : 상조 마을 남동쪽 골짜기. 내동재가 통한다.
- 용바위 : 도로재 마을 북쪽 냇물과 도로 사이에 있는 바위. 바위의 아래에는 냇물의 공격으로 깊은 못을 이루고 못에서부터 도로에 이르기까지 바위가 솟아있다. 못에서 하늘로 오르는 용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옷말 : 상조의 동쪽 끝 마을.
- 위뜸 : 새재 마을의 동쪽 부분을 부르는 옛 이름.
- 으승굴 : 중조 마을 태화사택 동쪽에 있는 산골짜기.
- 은현냇갈 : 하조 마을 남쪽 들건너에 있는, 은현리에서 내려오는 내.
- 장적굴 : 상조 돌앞말 동북쪽 골짜기. 뽕박굴과 가는굴 사이에 있다.
- 절터 : 대숙굴 위쪽에 있는 옛 절터.
- 조령(鳥嶺) : 새재의 한자 표기.
- 조치(鳥峙, 식지) : 새재 <1911, 朝鮮地誌資料>
- 조치리(鳥峙里) : 새재 마을의 한자 표기.
- 좁은목 : 봉성리와 평라리의 경계지역. 목이 좁아 붙여진 이름이다.
- 중뜸 : 새재 마을의 중간 부분을 부르던 옛 이름.
- 중조(中鳥) : 새재 중뜸의 한자 표기. 일제시대 이전부터 표기했던 이름으로 보이며 요즘은 거의 중조로 부른다. 도로재, 양지뜸, 청룡, 세집매로 구성된다.

- 죽은절굴 : 하조 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각시봉의 동남쪽이다.
- 질밭이바위 : 하조 마을 동쪽 냇물의 가운데에 있는 큰 바위. 도흥리로 통하는 길 밑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천질바위 : 평라리 자라실과 경계를 이루는 바위. 하천의 북쪽에 있는 바위이다. 사암 지층을 하천이 절단하여 형성되었다. 천길(千丈)이나 된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청룡 : 중조 마을 남쪽 부분. 세집매와 양지뜸의 사이에 있다.
- 측량대 : 하조 마을 서남쪽 산. 옛날 측량 깃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큰절굴 : 하조 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각시봉의 동쪽이다.
- 하조(下鳥) : 새재 아래뜸의 한자 표기. 일제시대 이전부터 표기했던 이름으로 보이며 요즈음은 거의 하조로 부른다.
- 하조리(下鳥里,시지) : 하조 <1911, 朝鮮地誌資料>
- 하조보 : 태화사택 서쪽에 있는 보. 하조 마을 앞 들에 물을 댄다.
- 학적골 : 중조 용바위 북쪽에서 동쪽으로 향한 골짜기.
- 해째들 : 하조 마을 앞 들.
- 해째보 : 하조 마을 봉성교 동쪽에 있는 보.



명덕초 옆 벚나무(2006)



하조 마을(2008)

8. 삼계리(三溪里)

본래 남포군(藍浦郡) 심전면(深田面) 지역이다. 늑전리 좁은목 안쪽 마을을 소위 쌍계 5동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쌍계(雙溪) 또는 삼계(三溪)라 하였고, 소삼(小三)과 대삼(大三)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중 대삼은 대농리 지역이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소삼리(小三里), 동산리(東山里), 판수리(判水里)를 병합하여 삼계리라 해서 보령군 미산면에 편입하였다.

- 가는골 : 은골의 안쪽에서 서남쪽으로 뺀 좁은 골짜기.
- 가운데굴 : 동산절 안뜸 마을 동쪽 골짜기.
- 가운데굴 : 판수굴 저수지 북쪽 골짜기. 동달봉의 남쪽 골짜기이다.
- 가창굴 : 판수굴에서 북쪽으로 난 큰 골짜기. 동달봉의 서쪽 능선으로 향해 있고 늑전리로 통하는 길이 있다. 은골과 넓적굴 사이에 있다.
- 각시봉 : 삼계리 동북쪽 암산의 다른 이름.
- 각시봉말랭이 : 동산절 안뜸 마을의 남동쪽 골짜기. 높이 450.0m이다.
- 강산재 : 동산절 안뜸 마을 남동쪽 각시봉말랭이와 신랑봉 사이의 고개와 고개 밑 골짜기를 통칭한다. 양지뜸으로 통한다.
- 개굴재 : 동산절 안뜸 마을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와 그 위에 있는 고개를 통칭함.
- 금반정 : 소삼 마을 서쪽 뒷동산의 다른 이름. 묘자리가 금쟁반과 같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너구리박굴 : 동산절 동북쪽 골짜기. 암산과 대박굴 사이에 있다.
- 넓적굴 : 판수굴 저수지 북쪽의 평평한 골짜기. 동달봉의 남쪽 골짜기이다.
- 농막태 : 재뜸 마을 남쪽에 있는 마을.
- 농망태 : 농막태의 다른 이름.
- 다래굴고랑 : 소삼과 작은 용오리 사이에서 서쪽으로 뺀 골짜기.
- 대박굴 : 동산절 동북쪽 골짜기. 너구리박굴과 줍방굴 사이에 있다.
- 독피 : 안뜸 동남쪽에 있는 산. 높이 166.2m이다.
- 동달봉 : 삼계리 북쪽 늑전리, 내평리와의 경계가 되는 봉우리.
- 동달산(東達山) : 미산면 삼계리 동달산 <1911, 朝鮮地誌資料>
- 동메산소 : 생계굴과 농막태 사이에 내민 작은 산줄기. 양주 조 씨의 대산소가 있다.
- 동산리(東山里) : 동산절의 옛 이름.
- 동산절 : 삼계리 동쪽 마을을 통칭하는 말. 새태, 안뜸, 은산뜸, 쇠재 마을을 통칭한다.
- 동산절다리 : 소삼 마을에서 동산절로 통하는 다리.
- 동산절재 : 동산절 새태 북쪽에 있는 고개. 내평리 구석뜸과 통한다.
- 두내받이 : 판수굴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내와 대농리 쪽에서 내려오는 내가 합쳐지는 곳. 내평리와의 경계이다.
- 뒷동산 : 소삼 마을 서쪽에 있는 산. 마을로 내밀어 있고 묘가 들어서 있다. 금반정이라고도 한다.
- 매봉 : 동산절 은산뜸 마을과 쇠재 마을 사이에 내민 112.6m 산봉우리.
- 매봉재 : 은산뜸 동남쪽에 있는 고개와 고개 밑에 있는 골짜기.

- 무두실재 : 동산절 은산뜸에서 쇠재 사이의 고개. 쇠재와 문두실로 넘어간다.
- 바람재 : 은골의 서쪽 꼭대기에 있는 고개. 늑전리 용오리고개로 통한다.
- 박정자나무 : 작은용오리 마을 북쪽에 있는 정자나무.
- 방앗들 : 삼계리 중앙 동산절 입구에 있는 들.
- 벼락바위 : 생계굴에서 재뜸으로 넘어가는 산길 옆에 있는 바위.
- 보통 : 삼계리 새태 마을에서 전매모텡이로 통하는 모룽이.
- 봄보골 : 판수굴 마을 남서쪽의 장고개골에서 서북쪽으로 난 작은 골짜기.
- 삼계(三溪) : 쌍계의 한자 표기.
- 삼계지(三溪池) : 판수굴 저수지의 다른 이름.
- 삼계평(三溪坪) : 미산면 풍산·남심·대농·삼계·내평리에 걸친 들(1911,朝鮮地誌資料)
- 삼악굴 : 동산절 안뜸 남쪽 매봉재 밑 골짜기. 풍산리 함박굴로 통한다.
- 새양굴 : 판수굴 저수지 북쪽의 골짜기. 동달봉의 남쪽, 가운데굴의 동쪽이다.
- 새태 : 동산절의 북쪽 마을. 동산절재를 통하여 내평리 안태와 통한다.
- 새터 : 새태의 다른 이름.
- 생계굴 : 농막태 서쪽, 절굴의 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
- 소삼(小三) : 삼계리 서쪽 지역을 통칭하는 이름. 삼계리의 중심 마을이다. 예부터 내평리 좁은목 남쪽지역을 통틀어 쌍계라 하였고 삼계(三溪) 또는 산계(山溪)로 표기하였다. 그 후 두 마을로 나누어大三溪와 小三溪라 표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소삼 마을은 옛 小三溪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 소삼리(小三里) : 작은 쌍계 즉, 소삼.
- 소시랑굴 : 판수굴 마을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증건너의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소재 : 쇠재의 다른 이름.
- 쇠꼬리 : 은산뜸과 쇠재 사이에 내민 산줄기. 산의 형국으로 보아 소의 꼬리에 해당되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쇠재재빠기 : 은산뜸에서 쇠재로 넘어가는 작은 고개.
- 수박구데기 : 판수굴의 은골에서 판수굴 마을로 들어오는 모룽이.
- 신랑봉 : 동산절 안뜸의 남쪽 봉우리. 226.6m이다.
- 신랑봉 : 삼계리 동쪽의 산봉우리. 각시봉의 남쪽에 있다. 높이 394.2m이며 풍산리와 의 경계이다.
- 쌍겨 : 쌍계의 다른 이름.
- 안뜸 : 삼계리 동산절의 동쪽에 있는 큰 마을.
- 안마실 : 안뜸의 다른 이름.

- 앞산 : 판수굴 남동쪽 앞에 있는 산. 높이 189.5m이다.
- 압산 : 삼계리 동산절 동북쪽, 내평리와의 경계에 있는 골짜기.
- 옷샘 : 안뜸 남동쪽 움말에 있는 샘. 옷이 올랐을 때 씻으면 나왔다고 한다.
- 용오리고개 : 바람재의 다른 이름. 소삼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다.
- 용오리고개굴 : 은골의 다른 이름. 소삼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 움말 : 안뜸 남동쪽 골짜기 밑에 있는 마을.
- 위뜸 : 소삼 마을 남서쪽에 있는 마을.
- 윗생굴 : 판수굴 마을의 서쪽으로 난 골짜기.
- 윗잔두백이 : 판수굴 마을의 북쪽으로 난 작은 골짜기.
- 은골 : 판수굴 마을의 서북쪽으로 난 골짜기. 가창굴의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판수굴에 살던 주민들이 부르던 이름이다.
- 은산뜸 : 동산절 남쪽에 있는 마을. 북향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음산 : 판수굴 마을 입구의 남쪽 산사면. 판수굴 저수지의 남쪽이다.
- 작은용오리 : 소삼 북쪽에 있는 마을.
- 장고개 : 판수굴 마을 남서쪽에 있는, 주산으로 통하는 고개. 장보리 다닐 때 넘어
다녀 붙여진 이름이다. 판수굴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고 다른 곳 사람들은 판수굴
재라 한다.
- 장고개굴 : 판수굴 마을 남서쪽 고개에 있는 골짜기. 판수굴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다.
- 재뜸 : 소삼 마을과 농막태 사이에 있는 마을.
- 전매모탱이 : 삼계리 북쪽 내평리와의 경계가 되는 모룽이. 내평리에서는 점늬모탱
이라고 부른다.
- 절굴 : 소삼 마을 남쪽에서 서쪽으로 뻗은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
- 절굴고랑 : 절굴이 있는 골짜기. 골짜기 입구에 생계굴이 있다.
- 절굴재 : 동산절 새태 북쪽에 있는 고개. 내평리 안태 구석뜸으로 통한다.
- 절굴재 : 동산절 안뜸에서 내평리 구석말로 넘어가는 고개.
- 절터 : 삼계리 동산절 압산 남서쪽에 있는 옛 절터. 이 절의 이름이 동산절이었고
절의 이름을 따서 마을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 점말 : 판수굴 큰고랑의 아래쪽 밭으로 개간된 부분. 요즈음은 가옥이 없었으나 과거
판수굴에 살던 어느 할머니를 점말택으로 불렀던 것으로 보아 과거에는 가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주걱봉 : 판수굴 마을 남쪽의 봉우리. 대농리, 주산면과의 경계가 된다.

- 주걱산 : 판수굴 마을 남쪽의 큰 골짜기. 주걱봉으로 향해 있다.
- 줍방굴 : 동산절 동북쪽 골짜기. 대박굴과 가운데굴 사이에 있다. 굴이 있다.
- 죽건너 : 판수굴 마을 앞에 있는 깊은 골짜기. 주걱산과 증건너 사이에 있다.
- 죽은검너덜 : 판수굴 마을 남쪽 골짜기. 죽은검너덜과 주걱산 사이이다.
- 죽은굴 : 절굴고랑의 북서쪽으로 뺀 골짜기.
- 증건너 : 판수굴 마을 동남쪽에 남쪽으로 난 골짜기. 은굴의 맞은쪽에 있다.
- 채초장 : 동산절 동쪽 각시봉의 암산 밑에 있다. 옛날 풀을 베던 곳이라고 전한다.
- 큰고랑 : 판수굴 남쪽에서 서쪽으로 뺀 골짜기. 상당부분이 밭으로 개간되었다.
- 큰굴 : 절굴고랑의 남서쪽으로 뺀 골짜기.
- 파봉터 : 동산절 새태 마을과 안뜸 마을 사이에 내민 낮은 산줄기.
- 판서곡(判書谷) : 판수굴의 한자 표기.
- 판서굴 : 판수굴의 다른 이름.
- 판수동(判水洞) : 미산면 삼계리 ‘판수굴’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판수굴 : 삼계리 서북쪽 긴 골짜기 속에 있는 마을. 여러 가구가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다. 철종 때 참판을 지낸 양주 조 씨 肅齋 趙乘憲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 판수굴재 : 판수굴 마을에서 주산면으로 통하는 고개. 판수굴 사람들은 장고개라고 부른다.
- 판수굴저수지 : 삼계리의 동쪽에 있는 저수지이다. 해쟁이에 물을 낸다.
- 판수리(判水里) : 판수굴의 다른 이름.
- 해쟁이 : 판수굴 저수지 동쪽에 있는 들.
- 행당고랑 : 소삼 마을 서쪽 골짜기. 다래굴고랑의 남쪽이다.
- 행여집모태이 : 작은용오리와 판수굴 저수지 사이의 모퉁이 상엿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굴의 탑(2006)



삼계리 정자나무(2006)

9. 옥현리(玉峴里)

본래 남포군(藍浦郡) 심전면(深田面)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상내리(上內里) 금당리(金塘里)를 병합하여 이곳에 있는 옥녀봉(玉女峰)과 장현(場峴)의 이름을 따서 옥현리라고 하였다.

- 가낭굴 : 사당굴 큰뜸 서쪽에 있던 골짜기. 옛날에 애장을 많이 했던 골짜기이다.
- 가재박굴 : 사당굴의 남서쪽 골짜기. 북개봉의 밑이다.
- 각시봉 : 사당굴 남쪽 367.9m 봉우리. 옥녀봉(玉女峰)이라고도 한다.
- 각시정주나무 : 옥현리 사당굴 정자뜸 방앗간 앞에 있는 느티나무. 나무는 그리 크지 않으나 속이 비어있다. 옛날 이 나무를 심고 마을에 신부가 탄 가마가 들어왔다는 전설이 있다.
- 고총굴 : 내동 안산과 청룡산 사이의 골짜기. 옛 무덤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골밭 : 사당굴 정자뜸 서쪽에 있는 밭.
- 구레굴 : 옥현리 사당굴 중앙에 있는 들.
- 굴탱이 : 옥현리 사당굴 최남단 마을. 바루메의 남쪽에 있다.
- 금당리(金塘) : 사당굴의 한자 표기. 1960년대 옥현 2구(금당, 내동) 중 1구.
- 나무재 : 옥현리 사당굴 남동쪽에 있는 고개. 부여군 옥산면과 통한다.
- 내동(內洞) : 옥현리 북쪽 끝 마을. 과거에는 순수 우리말 지명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나 노인들도 내동(內洞) 밖에 다른 이름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한다. 1960년대 옥현 2구(금당, 내동) 중 1구.
- 노루목굴 : 옥현리 사당굴의 남쪽 골짜기.
- 달뚝이산 : 옥현리 내동 동북쪽에 있는 282.5m 산. 달이 떠오르는 산이라는 뜻.
- 당산 : 내동 동북쪽 산. 산제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독쟁이고개 : 옥현리 내동 고총굴에서 부여군 옥산면 상기리로 통하는 고개.
- 마름들 : 마릿들 마을의 다른 이름.
- 마릿들 : 옥현리 사당굴 정자뜸과 내동 사이에 있는 마을.
- 매봉재 : 내동 서북쪽 봉우리. 내현리, 봉성리와의 경계가 된다.
- 모과나무굴 : 옥현리 사당굴 동쪽 쇠갈 마을이 있는 골짜기.
- 모과나무굴재 : 옥현리 사당굴 모과나무굴에서 부여군 옥산면 학산리로 통한다.
- 모탱이뜸 : 옥현리 사당굴 최남단 마을. 바루메의 남쪽에 있다.
- 바루메 : 옥현리 사당굴 모탱이뜸 동쪽에 있는 마을.

- 바르메산 : 옥현리 사당굴 바르메 마을 뒷산.
- 백호날 : 내동 서쪽으로 내민 산줄기. 풍수적으로 우백호에 해당되어 붙여진 이름.
- 병풍재 : 옥현리 사당굴 남쪽의 산 능선. 부여군 홍산면과 경계한다.
- 북감 : 사당굴 새뜸의 서쪽 산비탈.
- 북개봉 : 옥현리 사당굴 남서쪽 봉우리. 높이는 389.0m이다.
- 부영바위 : 옥현리 사당굴 큰뜸 서남쪽에 있는 바위.
- 비득재 : 옥현리 사당굴 남동쪽에 있는 고개. 여수고개의 동북쪽이다.
- 사당굴 : 옥현리에서 내동을 제외한 전 지역을 지칭한다.
- 산제당 : 내동 여수박굴에 있었다. 옛날 정월 초엿새에 제를 지냈다고 전한다. 70노인도 산제를 지냈다는 말만 들었다고 하므로 일제시대에 없어진 듯하다.
- 산제당 : 사당굴 새뜸의 서쪽 7부 능선에 있었다. 주민들은 제 지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므로 일제시대에 없어진 듯하다.
- 상내리(上內里) : 내동의 옛 이름.
- 상내리(上內里,안골) : 옥현리 내동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새뜸 : 옥현리 사당굴의 북쪽 마을. 마을의 입구이다.
- 새재고개 : 내동 북쪽에 있는 고개. 봉성리에서는 내동재라고 한다.
- 새재골 : 내동 북쪽의 골짜기. 새재고개로 통한다.
- 서당터 : 사당굴 새뜸 서쪽의 골짜기. 이곳에는 과거에 서당이 있었고 서당집의 담장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한다.
- 솔피 : 옥현리 사당굴 모탕이뜸 쪽으로 내민 산줄기.
- 송날 : 옥현리 사당굴 서쪽에 있는 산능선.
- 쇠갈 : 옥현리 사당굴 동쪽 끝에 있는 마을.
- 숫굿재 : 내동 서쪽 매봉재의 남쪽 사면. 내현리와의 경계가 된다.
- 신랑봉 : 옥현리 사당굴 남서쪽 봉우리. 높이 394.2m이다.
- 안산 : 옥현리 사당굴 쇠갈 북쪽으로 내민 산줄기.
- 앞들 : 내동 앞 들.
- 양암산 : 옥현리 서북쪽 끝에 있는 산봉우리. 은현리, 내평리와 경계를 이룬다. 내평리에서는 암산으로 불린다.
- 여수고개 : 은현리 사당굴 남동쪽에 있는 고개. 부여군 옥산면과 통한다. 테피의 동북쪽이다. 이곳에서 여우가 울면 초상이 난다고 한다.
- 여수박굴 : 내동 동북쪽 골짜기. 골짜기 위에 산제당이 있었다.

- 옥현1리 : 1반 새뜸, 2반 골말 정자뜸, 3반 큰뜸, 4반 상바위, 5반 아래뜸.
- 옥현2리 : 1·2반 내동.
- 장고개 : 사당굴 남쪽 신랑봉과 각시봉 사이의 고개. 풍산리를 통하여 판교장을 보러가는 고개이다.
- 장고개골 : 옥현리 사당굴 남쪽 골짜기.
- 장승백이 : 사당굴 새뜸의 마을 회관 자리. 돌무더기와 장승이 서 있었다고 전한다. 1970년대에 돌무더기를 치우고 마을 회관을 세웠다. 장승은 일제시대에 없어진 듯하다.
- 장현(場峴) : 장고개의 한자 표기.
- 절굴 : 옥현리 사당굴 남쪽 골짜기. 옛날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정굴 : 옥현리 사당굴의 남서쪽 골짜기.
- 정자뜸 : 옥현리 사당굴 새뜸의 남쪽 마을. 새뜸과 큰뜸 사이에 있다.
- 질마배미 : 사당굴 마릿들 앞 논.
- 청룡산 : 옥현리 내동 남동쪽에 내민 산줄기. 내동의 좌청룡에 해당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큰굴 : 옥현리 사당굴 남서쪽 신랑봉 밑 골짜기.
- 큰뜸 : 옥현리 사당굴 정자뜸과 모탕이뜸 사이에 있는 마을.
- 큰양지 : 옥현리 남서쪽 북개봉의 동쪽 사면을 통칭하는 이름.
- 테뢰 : 옥현리 사당굴 남쪽 봉우리.



각씨정자나무(2008)



옥현마을 안내비(2008)

10. 용수리(龍水里)

본래 남포군(藍浦郡) 심전면(深田面)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거문리

(巨門里), 수현리(水絃里), 용암리(龍岩里)를 병합하여 용암(龍岩)과 수현(水絃)의 이름을 따서 용수리라 하여 보령군 미산면에 편입되었다. 마을의 대부분은 보령댐에 수몰되었다.

- 잣굴 : 문봉산의 북서쪽 끝에 있는 골짜기. 홍굴의 북쪽에 있다.
- 개사리 : 중대골 입구에서 동남쪽(문봉산쪽)으로 뻗은 골짜기. 안에 개사리절(광덕사)이 있다.
- 거무러지 : 용수리의 북쪽 중대암 입구에 있던 마을. 보령댐에 수몰되었다.
- 거문(巨門) : 거무러지의 한자 표기. 요즈음은 거의 거문이라고 부른다. 1960년대 용수 3구중 1구.
- 거문리(巨門里) : 거무러지의 한자식 표기.
- 거물어지(巨物於之) : 거무러지의 한자 표기.
- 경기미들 : 중말과 물줄 사이에 있던 들. 보령댐에 수몰되었다.
- 광덕사 : 개사리 안에 있는 절.
- 금감 : 금강암 북쪽에 있던 작은 마을. 모두 이주하였다.
- 금감어귀 : 금감 골짜기의 입구. 보령댐에 수몰되었다.
- 금강(金岡) : 금감 마을의 한자 표기.
- 금강나들 : 금감 어귀 동쪽, 보래골 맞은쪽에 있던 마을. 보령댐에 수몰되었다.
- 금강암(金剛庵) : 금감에 있는 암자이다. 조선 태종의 후비인 권 씨가 세운 원당이다. 미륵불과 비편이 남아있어 충청남도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 김나는바위 : 금감 입구의 북쪽에 있는 바위. 겨울에도 따뜻하여 김이 난다고 한다.
- 꽃봉 : 금감 마을의 서북쪽 큰재골과 사지골 사이에 있는 217.0m 봉우리이다.
- 난살피 : 용수리 북쪽 끝 풍계리 완성 마을과의 경계가 되는 산.
- 넓적바위 : 오얏골 북쪽에 있는 넓적한 바위.
- 도깨비뚝병 : 미산 삼거리의 서북쪽, 즉 양조장 뒤쪽에 있던 논 이름. 보령댐에 수몰되었다.
- 도랫넷물 : 수현교 북쪽의 하천 지명이다. 보령댐에 수몰되었다.
- 뚝병 : 거무러지 마을 서쪽, 두 물줄기가 합쳐지는 곳이었다. 상당히 깊었다고 한다. 보령댐에 수몰되었다.
- 마당바위 : 용암 마을과 천팽이 마을 사이에 있던 바위. 용바위 옆에 있었다. 보령댐에 수몰되었다.
- 매나무굴재 : 용수리 오얏골과 평라리 자라실을 잇는 고개.

- 매바위 : 용수리 서쪽 끝, 웅천읍과 주산면과의 경계가 되는 바위.
- 문바위 : 문봉산 정상에 있는 대문처럼 생긴 바위.
- 문봉산(門峰山) : 중대골과 수현 마을 사이에 있는 산. 산 꼭대기의 바위가 대문처럼 열려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옛날 이곳에 사기그릇을 실은 배가 지나다가 부딪쳐 문처럼 껴였으며 주변에 사기 그릇 깨진 것도 많다는 전설이 있다.
- 문암(門岩) : 문바위의 한자 표기.
- 물방앗간 : 거무러지 마을 서북쪽, 도로 서쪽에 있던 옛 물방앗간. 보령댐에 수몰되었다.
- 물줄 : 옛 용수리의 중심 마을. 수현(水絃)의 순수 우리말 이름이다. 보령댐에 수몰되었다.
- 물탕 : 새암밭 남쪽에 있는 샘. 좋은 물이 나오며,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
- 밭다랭이 : 옛 미산초등학교 남쪽, 하천 제방을 따라 길게 늘어섰던 밭. 일종의 자연 제방으로 주변보다 높아 밭으로 이용되었다. 보령댐에 수몰되었다.
- 배나무배미 : 용암 마을에서 중암들로 통하는 길가에 있던 논. 논둑에 한아름 정도의 배나무가 있었다. 보령댐에 수몰되었다.
- 번던뜸 : 오얏골 서쪽 내 건너에 있던 마을. 용배들의 북쪽 끝에 있었다. 수몰되었다.
- 병목안 : 향로봉과 팽이산 사이에 있는 경사가 급한 골짜기. 병의 목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 보래골 : 금감나들 서쪽에 있는 골짜기. 금감과 수챙이골 사이에 있다. 안에 논이 있었으며 과거에는 주민도 거주하였다. 보령댐에 수몰되었다.
- 부두굴 : 중대암 입구에서 동쪽으로 난 첫째 골짜기.
- 부엉바드라 : 용암 마을 서남쪽 산모퉁이. 이곳에는 집채 만한 바위가 있었다. 보령댐에 수몰되었다.
- 사기점골 : 용수리 오얏골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큰골과 진너덜골 사이에 있다.
- 사지골 : 금강암 남쪽에서 서쪽으로 뻗은 골짜기이다.
- 산제당골 : 거무러지 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이곳에 살던 주민들은 제 지내는 것을 보지는 못하고 옛날에 지냈다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돌 밑에서 제를 지냈다고 한다.
- 삼거리 : 미산면의 옛 중심 마을. 도화담 주산간 도로와 도흥, 대농 방향으로 통하는 도로가 갈라졌던 삼거리이다. 마을의 역사는 길지 않지만 면사무소, 양조장, 우체국 등이 들어서 중심마을이 되었다. 삼거리의 동북쪽 부분이 용수리에 속했다.

- 상거리(上巨里, 위거무러지) : 거무러지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상대골 : 중대사에서 상대사로 통하는 골짜기.
- 상대사(上垵祠) : 임학준이 타계한 후, 유림들이 세운 임학준의 사당. 상대암이 됨.
- 상대암(上臺庵) : 상대골 정상 바로 밑에 있는 절. 요사채의 뒤에 있는 바위틈에서 좋은 물이 샘솟는다. 수량도 많다. 풍천 임 씨 任學準이 1895년 아버지의 묘를 이장하고 묘막을 지으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趙翊淳을 초청하여 학도들의 강학 장소로 이용되었고, 임학준이 타계한 후, 임학준의 사당 상대사(上垵祠)가 되었다. 그 후 중대암 소속의 암자가 되어 조계중 소속이 되었다.
- 새내 : 오얏골 앞쪽으로 흐르던 작은 내. 도로의 동쪽에 있었다.
- 새보 : 양각산과 중매산 사이에 있던 보. 매바위 남쪽 들에 물을 대던 보이다.
- 새보 : 중대골 서쪽에 있던 보. 금강나들에 물을 댔다.
- 새암밭 : 거무러지 마을 동쪽 산. 높이 420.0m 이다.
- 서낭댕이 : 평라리 안뜸 마을과 용수리 엮뜸 사이의 산꼭대기에 있었다.
- 서낭댕이재 : 평라리 안뜸과 용수리 엮뜸 사이의 고개.
- 석강산 : 옛 금강 입구의 내 이름. 하천의 공격사면에 해당되어 급한 절벽을 이루고 있었다. 예부터 명주꾸리 3개가 들어갔다는 전설이 전한다. 수몰되었다.
- 섯다리 : 옛 물줄과 용암 마을 사이에 있던 다리. 돌을 쌓아 교각을 만들고 통나무 5~6개를 엮어 5~6개를 걸쳐 놓아 통행하였다. 홍수 때마다 새로 놓았다. 수몰지역이다.
- 세면골 : 수현 오얏골의 동북쪽 즉, 문봉산의 서쪽 골짜기.
- 속개울 : 옛 거무러지 마을 서쪽에 있던 좁은 들. 난살피의 동쪽 기슭이었다. 수몰 지역이다.
- 쇠쟁이 : 옛 천뽕이 마을 앞내. 일제 때 사금을 채취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수챙이골 : 용수리의 북쪽 난살피의 남쪽 골짜기. 보래골의 북동쪽이다.
- 수현(水絃) : 물줄의 한자 표기. 오얏골, 중말, 엮뜸을 합한 이름이기도 하다. 1960년대 용수 3구 중 1구. 모두 수몰되었다.
- 수현교 : 물줄 마을에서 천뽕이로 통하던 다리.
- 수현리(水絃里, 물줄) : 물줄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숲골 : 금강암 남쪽에서 서남쪽으로 뺀 골짜기. 숲을 구웠다고 전한다.
- 숲구터 : 양각산 서남쪽 사면. 숲을 구웠다는 전설이 있다.
- 심전들 : 중대골과 거무러지 서쪽에 있던 들. 도로의 서쪽이다.

- 아래뜸 : 옛 수현 마을의 남쪽. 즉, 옛 물줄을 말함.
- 아래지장굴 : 중대사 입구의 부두굴 다음 골짜기. 위치장굴 밑에 있다.
- 아미산(我帽山) : 미산면 용수리 아미산 <1911, 朝鮮地誌資料>
- 압보(鴨汙) : 오리보의 한자 표기.
- 양각산 : 용암마을 뒤쪽에 있는 웅천읍과 미산면의 경계가 되는 산. 용암마을 뒤에 서는 수직 절벽을 이루어 양의 뿔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용암 마을 쪽 산록은 풍수상 성주 8모란 중 1곳이라고 전하여 많은 묘가 들어서 있다.
- 엉개들 : 중대골과 수현 오얏골 마을 사이에 있던 들. 도로의 동쪽이었다.
- 엮뜸 : 옛 미산초등학교 남동쪽에 있던 마을. 마을 안에 수현사가 있었고, 주변에서 도요지가 발견되었다. 과주 엮 씨가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수현사는 수물선 위로 옮겼고, 주민들은 모두 이주하였다.
- 엮서방내산 : 양각산의 서남쪽 산사면.
- 영흥사(永興寺) : 용수리 아미산에 있던 절. 위치 불명 <1911, 朝鮮地誌資料>
- 오리보 : 용수리의 중앙부에 있던 보이다. 용배보의 밑에 일제시대에 만들었는데 수해로 유실되어 수물 전에도 없었다고 한다. 오리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수물지역이다.
- 오리보들 : 오얏골 서쪽에 있던 들. 오리보에서 물을 대어 붙여진 이름이다. 수물되었다.
- 오야미 : 옛 미산초등학교 동북쪽 하천 제방과 도로로 둘러싸인 부분.
- 오얏골 : 수현마을의 북쪽 부분. 위뜸이라고도 했다. 이곳은 평평하여 옛날 공치기 하던 곳이라고 전한다.
- 옥계사(玉溪寺) : 용수리 양각산 금강암의 전 이름. <1911, 朝鮮地誌資料>
- 용바위 : 용암 마을과 천뱅이 마을 사이의 산모퉁이에 있던 바위. 용암 마을의 어원이 된 바위이다.
- 용배 : 용바위의 다른 이름.
- 용배들 : 천뱅이 마을 앞에 있던 들. 들의 남쪽에 있는 용바위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용배모퉁이 : 용암 마을에서 천뱅이 마을로 돌아가던 모퉁이. 옛날 이곳에서 차들을 쫓았다고 한다.
- 용배보 : 석강산 바로 밑 금감 어귀에 있던 보. 용배들에 물을 댔다.
- 용수1리 : 수물 전, 1반 오얏골, 2반 아래뜸, 3반 번논뜸, 4반 천뱅이, 5반 금강.
- 용수2리 : 수물 전, 1·2반 용암.

- 용수3리 : 수모런, 1반 중대골, 2·3반 거문.
- 용암(龍岩) : 용수리의 중심이었던 마을. 양각산의 남쪽에 위치하였다. 마을의 앞에는 용암내가 휘감고 뒤에는 양각산이 있어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촌락이었다. 예부터 경주 이 씨가 세거하였다. 이제현의 영당(三思堂)이 있고, 영당 앞에는 수백 년 된 은행나무가 있다. 1960년대 용수 3구 중 1구. 보령댐 건설로 삼사당과 은행나무는 수몰선 위로 올라가고, 주민은 모두 이주하였다.
- 용암교 : 용암 마을과 삼거리 마을 사이에 있던 다리. 과거에는 징검다리가 놓였었다고 한다.
- 용암내 : 용암마을 앞에 있던 내. 큰냇갈의 다른 이름.
- 용암리천(龍巖里川) : 용암마을 앞의 하천(웅천천 본류) <1911, 朝鮮地誌資料>
- 용암보 : 용암 마을 동쪽에 있던 보. 이 보 자리에는 과거 하천 중간 중간에 돌 무더기를 쌓고 통나무 5~6개를 엮어 놓은 쉼다리를 놓아 교통로로 이용하였다.
- 위뜸 : 수현 마을의 북쪽 부분. 오얏골의 다른 이름.
- 윗지장굴 : 중대사 바로 밑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
- 유덕재 : 새암밭의 다른 이름.
- 이빨빠진산 : 문봉산의 다른 이름. 이빨이 빠진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이서방골 : 용암 마을과 용배모탕이 사이에 있는 골짜기.
- 이서방내산 : 양각산 서쪽 즉, 사지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잉갈 : 오얏골 마을 북서쪽, 과거 봇물이 갈라지던 곳. 수몰지역이다.
- 잉결 : 잉갈의 다른 이름.
- 장고개 : 금감 큰재골에서 웅천 평리로 넘어가는 고개. 웅천장에 다니던 고개.
- 중대골 : 거무러지와 수현 오얏골 사이에 있는 마을. 중대사의 입구이다.
- 중대골 : 중대사가 있는 골짜기를 통칭하는 말. 옛날 번던뜸 사는 사람이 산삼을 한 구럭 켜다는 전설이 전한다.
- 중대사 : 중대골에 있는 절. 중대암.
- 중대암(中臺庵) : 중대사
- 중말 : 물줄 아래뜸과 엮뜸 사이 즉, 옛 미산초등학교 동쪽에 있던 마을. 마을의 가운데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 중보 : 용암마을과 옛 미산초등학교 사이에 있던 보. 둑이 통학로로 이용되었었다.
- 중암들 : 용암 마을 남쪽에서부터 서쪽에 이르렀던 들.
- 진너덜골 : 오얏골 동쪽 골짜기.

- 진너덜말랭이 : 오얏골 동쪽 진너덜골의 꼭대기. 평나리 자라실과 통한다.
- 참나무들 : 염뚝과 중말 사이에 있던 들.
- 채초장 : 금감 마을 큰재골 서북쪽 평평한 지형. 과거 풀을 베던 곳이라고 전한다.
- 천방(千房) : 천뱅이의 한자 표기.
- 천뱅이 : 용암 마을 북쪽 골짜기 입구에 있던 마을. 1987년 수해 때 산사태로 주민이 희생되기도 한 마을. 마을의 안에는 많은 절터가 있다고 전하며, 마을의 남쪽 산기슭에서도 절터가 발견되었다. 산 사면에서는 많은 요지(窯址)가 발견되었다. 큰절터에 있던 절의 방이 1000개였기 때문에 천뱅이라고 불렀다는 전설이 있다. 조선시대에 보(洑)를 천방(川防)이라 하였으므로, 보와 관련 있는 지명으로 보인다.
- 큰골 : 물줄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 행상바위골의 북쪽.
- 큰넛갈 : 용수리 중앙을 흐르던 내. 은어가 특히 많았고 참깨, 장어, 자라 등의 고기가 많으나 중대골에 산삼이 많아 잉어는 없었다는 전설이 있다.
- 큰재골 : 금감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 위에 염씨의 재실이 있다. 장고개를 넘어 웅천읍 평리와 통한다.
- 큰절터 : 천뱅이 계곡 위쪽에 있던 절터. 방이 천개였다고 전한다. 발굴되었다.
- 팽개바위 : 용수리 서쪽 급경사로 된 산 밑에 있던 바위. 이곳에 보령댐 제방을 축조하였다.
- 팽이산 : 천뱅이 마을과 향로봉 사이에 있는 봉우리. 팽이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높이 257.0m이다.
- 평풍바위 : 문봉산의 서북쪽 능선에 있는 바위.
- 하거리(下巨里, 아리거무러지) : 거무러지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행상바위 : 물줄 마을 동쪽 행상바위골 남쪽에 있는 바위.
- 행상바위골 : 물줄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 남쪽에 행상바위가 있다.
- 향로봉 : 금감 마을 남쪽에 있는 봉우리. 높이 300.5m이다.
- 호랭이바위 : 문봉산 서쪽 정상 부분에 있는 바위.
- 호룡태 : 거무러지 마을 북쪽에 있는 밭. 거무러지 마을 동북쪽으로 뻗어내민 산자락을 말하기도 한다. 채석장이 있어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다. 왜군을 망보던 곳이라는 전설이 있다.
- 홍굴 : 수현 오얏골의 동북쪽. 즉, 문봉산의 서쪽 골짜기. 세면굴과 갓굴 사이.



용바위(1995)



광덕사(2006)



중대골(1995)



용암마을(1992)

11 은현리(隱峴里)

본래 남포군(藍浦郡) 심전면(深田面) 지역으로서, 은고개 밑이 되므로 은고개 또는 은현(隱峴)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하내리(下內里), 모항리(茅項里), 중조리(中鳥里) 일부를 병합하여 은현리라 해서 보령군 미산면에 편입되었다.

- 개창생이 : 언고개 구멍말 서쪽, 서낭당이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고이바위 : 언고개 서쪽 개창생이 위에 있는 바위. 고양이바위라는 뜻이라고 한다.
- 골뜸 : 언고개의 북쪽 부분. 용굴과 통하는 용굴재가 있다.
- 구메 : 뜨메기 마을 남쪽 산 중턱. 지궁터의 서쪽이다. 돌너덜로 되어있다.
- 구멍말 : 언고개 마을 서쪽 부분.
- 구진메 : 용굴의 서쪽(맞은쪽) 골짜기.
- 늘색이 : 뜨메기 마을 서쪽, 수작굴의 서쪽으로 난 골짜기.
- 닷밭모퉁이 : 뜨메기 새뜸말에서 구진메 쪽으로 돌아가는 모퉁이. 옛날 종이 만드는 원료인 닻나무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두집배 : 뜨메기 마을 동북쪽 와우형 끝에 있는 마을. 집 두 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뜨메기 : 은현리의 남쪽 마을. 마을 앞 정자나무 아래에 자연석을 이용하여 원뿔모양으로 쌓은 탑이 있었다. 보령지방에서는 유일한 탑이었다. 현재는 탑의 기초만 남아 있다. 대원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한 이원희의 고향이다.
- 뜨메기재 : 뜨메기 마을에서 내평리로 넘어가는 고개. 수작굴에서 넘어간다. 내평리와 와의 사이에 2차선 포장도로가 만들어졌다.
- 뜸부기 : 뜨메기의 다른 이름. 뜨메기가 변하여 뜸부기가 되었다. 주민들은 뜨메기라고 확실히 부른다.
- 마당배 : 언고개 서쪽 몇 채의 집이 있는 곳. 구멍말의 남쪽이다.
- 멩덕봉 : 언고개 북쪽의 211.2m 봉우리. 벌의 멩덕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 멩태들 : 은현리 북쪽 용굴 서쪽에 있는 들.
- 모항(茅項) : 뜨메기의 한자 표기.
- 모항리(茅項里, 씨목니) : 뜨메기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백탄숯고랑 : 뜨메기 마을 서남쪽 골짜기. 새양배산 밑이다. 옛날에 백탄을 구웠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보지바위 : 언고개 서쪽 서낭당이 옆에 있는 바위.
- 불무굴재 : 뜨메기 마을에서 와우형 남쪽 산허리로 오르는 고개.
- 사기전번덕지 : 새뜸말 서쪽의 산사면. 질마재의 밑이다.
- 새뜸말 : 뜨메기 마을 서북쪽에 있는 마을.
- 새양배 : 뜨메기재 밑에 있는 바위.
- 새양배산 : 뜨메기 마을 서쪽에 있는 수작굴의 위쪽 산봉우리.
- 새재고개 : 언고개에서 봉성리로 통하는 고개. 봉성 쪽에서는 언고개라고 부른다.
- 새추장 : 언고개 청룡산 남쪽 능선. 옛날에 애장이 많았다고 한다.
- 서낭당이 : 언고개 서쪽 버스정류장 옆에 있었다. 모두 없어지고 신목만 남아 있다.
- 수작굴 : 뜨메기 마을 서쪽에서 남쪽으로 향한 골짜기. 논이 많다.
- 안터굴 : 청룡산과 옥현리 내동 사이의 골짜기. 옥현리와의 경계를 이룬다.
- 알피 : 뜨메기 마을 동쪽에 있는 봉우리. 알피고랑과 장적굴 사이에 있다.
- 알피고랑 : 뜨메기 마을 동쪽 와우형과 알피 사이에 있는 골짜기.
- 양암산 : 뜨메기 마을 남쪽의 347.8m 산봉우리. 옥현리, 은현리, 내현리의 경계.
- 언고개 : 은현리 은현(隱峴) 마을의 순 우리말 이름. 현재도 주민들은 언고개라고 부른다. 마을 뒤쪽의 고개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구멍말, 큰뜸, 골뜸으로 구성

되어 있다.

- 와우형 : 양암산에서 뜨메기 마을 동쪽으로 내민 산줄기, 풍수상으로 보아 와우형에 속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외배미 : 언고개 마을 회관 옆에 있는 논.
- 요까모탱이 : 언고개 청룡산의 남쪽 끝, 옥현 내동과 사당골로 통하는 삼거리이다.
- 용굴 : 은현리 북쪽 입구의 동쪽으로 난 골짜기.
- 용굴재 : 언고개 구멍말, 골땀에서 용굴로 넘어가는 고개.
- 은고개 : 언고개의 다른 이름.
- 장적굴 : 언고개 남쪽 들 건너에 있는 골짜기, 안에 많은 밭이 있다.
- 지궁터 : 뜨메기 마을 남쪽 산 중턱.
- 지름재 : 뜨메기 마을에서 내평리로 통하는 고개, 지름길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 질마재 : 뜨메기 마을 서쪽에 있는 산, 두 봉우리가 말 허리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차돌백이 : 언고개 마을 회관에서 큰땀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말함. 차돌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청룡고개 : 언고개 마을 큰땀에서 안터굴로 넘어가는 고개.
- 청룡골 : 언고개 동쪽 골짜기. 명덕봉과 청룡산 사이에 있다.
- 청룡날 : 뜨메기 마을 서쪽에 내민 산줄기.
- 청룡모탱이 : 뜨메기 마을에서 수작굴로 가는 산모퉁이. 청룡날의 끝이다.
- 큰땀 : 언고개의 중심 마을. 언고개 마을의 동쪽 부분이다.
- 토광 : 뜨메기 동쪽 두집매를 부르는 다른 이름. 마을 앞에 웅덩이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하내리(下內里, 언고지) : 은현리 언고개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음고개 정자나무(1995)



뜨메기 정자나무 밑 탑의 기초(2007)

12. 평라리(平羅里)

원래 남포군(藍浦郡) 심전면(深田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평장리(平章里) 일부와 자라리(者羅里)를 병합하여 평라리라 해서 보령군 미산면에 편입하였다. 1947년 4월 7일 삼거리로 미산면사무소가 옮겨옴에 따라 미산면의 중심 마을이 되었다. 보령댐 축조 공사로 마을의 대부분은 수몰되었다.

- 강당 : 평라리 자라실 위뜸의 북쪽에 있는 마을. 울타리굴의 입구에 있다.
- 고린장날 : 자라실 마을 북쪽 장군봉 남쪽의 산 능선. 고린장(백제고분)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끼덩굴과 도구통굴 사이에 있다.
- 곰재 : 평라리 성재 마을과 주산면 동오리를 잇는 고개로 과거에는 주산면과 미산면을 잇는 주 교통로로 이용되었다. 근래 매바위 앞으로 길을 돌려 내어 이용되지 않았으나 보령댐의 건설로 미산면 늑전리와 주산을 잇는 주 교통로가 되었다. 정상부분을 상당히 낮추었다.
- 공동묘지 : 자라실 마을 남쪽 칠능대의 서쪽 사면에 있었다.
- 공짜보 : 주산면 동오리, 화평리, 삼곡리 지역에 물을 공급하던 보. 새로 만든 후 새보라고 불렸다. 보령댐 제방 안쪽이었다. 현재는 보령댐에서 물을 공급한다.
- 구보 : 밭가운데 마을 동쪽에 있던 보.
- 구역말 : 평라리 자라실의 옛 미산중학교 뒷마을. 쌀을 구역말이나 수확하는 부자가 살았다는 전설이 있다. 모두 수몰되었다.
- 구역말굴 : 구역말 뒤쪽 쟁미봉 서쪽 골짜기.
- 느리재 : 안뜸과 자라실 마을 사이에 있는 산.
- 도구통굴 : 자라실 마을 북쪽 장군봉 남쪽에 있는 골짜기. 성재굴과 새끼덩굴 사이에 있다.
- 뒷굴 : 평라리 자라실 자라봉 동쪽에 있는 골짜기. 등잔봉의 남쪽이다.
- 등잔봉 : 자라실 위뜸의 동쪽 홍굴과 뒷굴의 사이에 있는 봉우리. 높이 266.9m이다. 풍수와 관계 깊은 지명이다.
- 말굽배 : 평라리 자라실 동쪽 천질바위 앞. 지형이 말굽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
- 매나무굴 : 자라실 북쪽에 있는 골짜기. 쟁미봉과 문드래미 사이에 있다.
- 매나무굴재 : 자라실 매나무굴에서 용수리 사기점굴로 통하는 고개.
- 멩덕봉 : 평라리 남쪽에 있는 늑전리와의 경계가 되는 산봉우리. 높이 203.7m이다.

평라리 쪽에서 보면 벌 멩덕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 문드래미 : 자라실 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새끼덩굴과 매나무굴 사이에 있다. 용수리 오얏골과 통하는 재가 있다.
- 문드래미재 : 문드래미 위쪽에 있는, 용수리 오얏골과 통하는 고개.
- 방아들 : 자라실 마을 남쪽에 있던 들. 옛날 수력을 이용한 디딜방아가 있었다.
- 방아보 : 자라실 성청거리 앞에 있던 보. 자라실 입구의 물레방아에 물을 댔다.
- 방천보 : 새뜸 마을 남쪽에 있던 보. 삼거리 마을 남쪽 방천보들에 물을 댔다.
- 방천보들 : 삼거리 마을 남쪽에 있던 들. 방천보에서 물을 댔다.
- 받가운데 : 삼거리 마을과 서죽굴 사이 하천 옆에 있던 마을. 모두 수몰되었다.
- 별곡(麓谷) : 자라실의 한자 표기. 1960년대 평라 2구(평정, 별곡) 중 1구.
- 별곡교(麓谷橋) : 자라실 입구에 있던 다리.
- 보도라 : 용수리 사지골 앞 내 건너에 있던 모래 들. 사지골 앞이 침식되고 그 반대쪽 보호사면에 퇴적된 지형이었다.
- 빙에길 : 평라리 안뜰에서 자라실로 통하는 길. 쇠꽃모랭이 북쪽 산기슭으로 나 있다. 자라실 마을 학생들이 홍수 때 물을 건너지 않고 미산초등학교에 다니던 길이다. 뱅에는 벼랑의 뜻이다.
- 사무리보 : 쇠꽃모랭이 태화교의 바로 밑에 있던 보.
- 사보 : 사무리보의 다른 이름.
- 산제당 : 자라실 북쪽 성재골과 도구통골 사이의 산능선 아래에 있었다. 정월 열나흘 밤에 제를 지냈다.
- 삼거리 : 미산면의 중심 마을이다. 조선 시대에는 취락이 형성되지 않았고 일제시대부터 형성된 취락이다. 면사무소(1947년 4월 7일 도화담리에서 이전), 양조장, 단위농협, 보건지소 등의 기관이 들어서 있었다. 수몰되어 모두 이주하였다. 삼거리의 남쪽 부분은 평라리, 동북쪽 부분은 용수리에 속했다.
- 삼형제바위 : 여귀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 집채만한 바위 3개가 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위 밑은 돌너덜로 되어 있다.
- 새끼덩굴 : 자라실 마을 북쪽 장군봉 남쪽 골짜기. 문드래미와 도구통굴 사이이다.
- 새들 : 평라리 동쪽, 자라실 마을 남쪽에 있던 들. 방아들의 남쪽이다.
- 새뜸 : 안뜰 마을 남쪽 하천 옆에 있던 마을.
- 새보 : 보도라 남동쪽에 있던 보. 주산면 동오리에 물을 댔다. 공짜보이다.
- 새보들 : 삼거리 마을 동쪽에 있던 들. 방천보들보다 고도가 높아 태화교 밑 새보에서 물을 댔다.

- 서낭댕이 : 안뜸과 염뜸 사이의 서낭댕이재 꼭대기에 있다.
- 서낭댕이재 : 안뜸에서 염뜸으로 넘어가는 고개.
- 서죽굴 : 서죽굴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늑전리로 통하는 고개가 있다.
- 서죽굴 : 평라리의 서쪽, 성재 마을과 평쟁이굴 사이에 있던 마을이다. 골짜기의 입구에 마을이 있었다. 병인박해 때 오천면 영보리 갈매못에서 처형된(양력 1866년 3월 30일) 다블뤼주교, 위앵신부, 오메르트신부, 장주기 회장의 시신이 묻혀 있던 마을이다. 이들의 시신은 1866년 7월 비밀리에 이곳에 매장되었다가 1882년 일본 나가사키로 옮겼다.
- 서죽굴재 : 서죽굴에서 늑전으로 통하는 고개.
- 석보 : 자라실 별곡교 위에 있던 보. 돌로 쌓아 석보라 부르고, 개인이 만든 보이므로 주인의 이름을 따 김정규보라고도 부른다.
- 성재 : 평라리의 서쪽, 곰재의 동쪽에 있던 마을. 마을은 산 밑에 길게 있었다.
- 성재골 : 자라실 강당 마을 북쪽, 장군봉 남쪽에 있는 골짜기. 울타리굴과 도구통굴 사이에 있다.
- 성재새보 : 아랫새보의 다른 이름. 성재들에 물을 대던 보이다.
- 성청거리 : 자라실 마을 동쪽 자라봉 밑 지역이다. 옛날 기와집이 많았고 지금도 기와가 많이 출토 된다고 한다. 태화탄광의 사택이 들어서 있었다.
- 소축재 : 서죽굴재의 다른 이름.
- 쇠꽃모랭이 : 평라리 안뜸에서 자라실로 통하는 모롱이. 풍화에 강한 역암의 지층이 노출되어 경사가 급한 바위 너덜로 되어있었다. 수몰되었다.
- 쇠꽃모랭이넷갈 : 자라실 마을 입구의 내. 수몰지역이다.
- 아래뜸 : 평라리 자라실 마을의 남쪽 부분. 모두 수몰되었다.
- 아랫새보 : 발가운데 마을과 삼거리 마을 사이에 있던 보. 평라교 아래에 있었다.
- 안들보 : 태화교 바로 위에 있던 보.
- 안뜸 : 삼거리 마을의 동쪽 산 밑에 남향으로 있던 마을이다. 수몰되었다.
- 안뜸넷갈 : 자라실 앞 내. 수몰지역이다.
- 안보 : 안들보의 다른 이름. 수몰지역이다.
- 안보들 : 안뜸 마을 앞에 있던 들이다. 태화교 위 안들보에서 물을 댔다.
- 여귀산 : 명덕봉 동쪽에 있는 봉우리. 평라리와 늑전리의 경계가 된다.
- 열마지기보 : 천질바위 밑에 있던 보.
- 오막내 : 평라리의 중심을 흐르던 내. 삼거리 마을 앞에서 큰넷갈과 합쳐졌다. 삼거리 근처에서 오막내라고 불렀다. 수몰지역이다.

- 용암보통 : 안들보의 다른 이름. 수몰지역이다.
- 울타리굴 : 자라실 강당 마을에서 장군봉 밑으로 난 골짜기.
- 울타리굴재 : 자라실에서 장군봉 밑으로 오르는 재. 도흥리 으승굴 꼭대기에 있는 마을과 통한다.
- 웅치(熊峙) : 곰재의 한자 표기.
- 위뜸 : 평라리 자라실 마을의 북쪽 부분. 수몰되지 않은 곳이다.
- 육굴 : 평라리 남쪽 평쟁이굴 동쪽에 있는 골짜기 마을. 모두 수몰되었다.
- 음산 : 자라실 마을 동쪽 산기슭을 통칭한다. 음지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자라곡리(者羅谷里, 자라실) : 자라실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자라뚝병 : 평라리 자라실 자라봉 꼭대기에 있는 웅덩이이다. 평상시에는 말라 있고 비가 오면 물이 고인다고 한다. 옛날 이 마을에 최씨라는 부자가 살았는데 너무 인색하였다. 어느날 스님이 시주를 요청하자 시주는 안 주고 욕설을 하였다. 스님이 풍수를 보니 금자라의 형국이라 자라봉에 올라 자라뚝병의 한쪽을 파 열어 놓았다. 이곳으로 금자라가 나갔고 바로 최씨 부자가 망했다는 전설이 있다.
- 자라리(者羅里) : 자라실의 한자 표기.
- 자라봉 : 평라리 자라실 동쪽에 있는 넓적하고 낮은 봉우리. 자라의 형태로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라실의 어원인 것으로 생각된다.
- 자라실 : 평라리 동쪽 끝 마을이다. 예부터 큰 규모의 마을이었다. 미산중학교가 있었다. 대부분 수몰되었고, 위뜸, 강당의 몇 가구만 남았다. 아래뜸, 중뜸, 위뜸, 구역말, 강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작은육굴 : 육굴 안의 작은 골짜기.
- 장군봉 : 평라리 자라실 북쪽에 있는 봉우리이다. 도흥리와 경계를 이룬다.
- 적미봉(積米峰) : 쟁미봉의 한자 표기.
- 정자나무 : 자라실 마을 입구에 있던 느티나무. 수령이 수백 년 되어 보이며 속은 썩어 비어 있었다. 정월 열나흘날 산제 후 제를 지냈다. 수몰 전에 없어졌다.
- 쟁미봉 : 평라리 자라실 구역말 북쪽의 봉우리. 쌀이 쌓인 봉우리라는 뜻이라고 한다. 구역말과 관계있는 지명이라고 주민들은 말한다.
- 좁은목 : 평라리 자라실에서 늑전리로 통하는 좁은 통로를 부르는 이름. 늑전리와의 경계가 된다. 수몰되었다.
- 중뜸 : 평라리 자라실 마을의 가운데 부분. 수몰선 부근이다.
- 중매산 : 주산면 동오리와 평라리의 경계가 되는 산. 이곳에 보령댐을 축조하였다.
- 진너덜말랭이 : 문드래미재의 다른 이름. 용수리 쪽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천봉지기 : 평쟁이 마을 앞에 있던 논. 붓물이 닿지 않아 천수답이라는 뜻이다.
- 천질바위 : 자라실 마을 서쪽 봉성리와의 경계가 되는 산능선에 있는 바위이다. 높은 바위 절벽을 이루었으나 도로 건설로 훼손되었다.
- 칠능태 : 자라실 마을 앞에 있는 산. 봉성리와 경계를 이룬다. 옛날 측량 깃점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 칼난바위 : 자라실 장군봉 남쪽에 있는 바위이다. 청석(점판암)으로 이루어져 칼날 같고, 석판이나 당구대용의 석재로 캐기도 하였다.
- 큰육굴 : 육굴 안의 큰 골짜기.
- 태화교 : 쇠꽃모래이 옆에 있던 다리. 태화탄광에서 건설하여 태화교라고 불렀다.
- 평라1리 : 1반 평창, 2반 음지, 3반 양지, 4반 윗말, 5반 아랫말, 6반 좁은목.
- 평라2리 : 1·2·3·4·5·6반 자라실.
- 평장(坪章) : 평쟁이의 한자 표기. 1960년대 평라 2구 중 1구.
- 평장리(坪章里) : 평라리 서쪽 평쟁이 마을의 옛 이름. 모두 수몰되었다.
- 평쟁이 : 평쟁이굴에 있던 마을. 모두 수몰되었다.
- 평쟁이굴 : 평라리 남쪽 육굴과 서죽굴 사이의 골짜기.
- 흥청거리 : 성청거리의 다른 이름.



공짜보(1995)



쇠꽃모래이(1995)



평라리 원경(1995)



평라리 고인돌 덮개돌(1995)

13. 풍계리(豊溪里)

본래 남포군(藍浦郡) 북외면(北外面)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풍년동(豊年洞)과 원침리(元沈里)를 병합하여 풍계리라 해서 보령군 미산면에 편입하였다. 1990~1998년 사이의 보령댐 건설공사로 완성 마을은 대부분 수몰되고, 풍년동 마을은 수몰되었으나 주민들은 수몰선 위로 옮겨 산다.

- 가는골 : 완성(원두머니) 마을 서쪽 큰골의 서남쪽 끝에 있는 골짜기. 장고개의 밑.
- 강깃날 : 완성(원두머니) 마을의 서쪽. 큰골과 권골 사이에 내민 산줄기.
- 검지들 : 옛 풍년동 마을의 동남쪽에 있던 들. 검지들보에서 물을 댔다.
- 검지들보 : 옛 풍년동 마을 동쪽 풍년교의 북쪽에 있던 보.
- 골뜸 : 옛 풍년동 마을의 북쪽 부분.
- 공동묘지 : 풍계리의 동쪽 배뜸과 새뜸 사이. 벼룩재의 북쪽에 있었다.
- 권골 : 완성(원두머니) 마을의 서쪽에서 서북쪽으로 난 큰 골짜기.
- 권골재 : 풍년동 마을과 완성(원두머니) 마을을 잇는 고개.
- 난살피 : 완성(원두머니) 마을의 남쪽에 있는 산. 높이 212.0m이다.
- 냉건 : 풍계리 북쪽 비끼내 남쪽의 급사면. 응달이라 부르는 이름이다.
- 덕대산 : 풍계리와 도화담리 안골에 있는 산.
- 돌정자보 : 풍계리 북쪽 비끼내에 있는 보. 도화담리 돌정자들에 물을 댔다.
- 두내밭이 : 풍계리 북쪽 성주면 쪽에서 내려오는 내와 부여군 외산면 쪽에서 내려오는 내가 합쳐지는 곳이다. 도화담리와의 경계이다.
- 뒷굴 : 옛 풍년동 마을 북쪽에서 서쪽으로 향한 골짜기. 산수골의 남쪽이다.
- 배뜸 : 완성(원두머니) 동쪽에 있는 마을. 남포 백 씨가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기도 하고, 100가구가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수몰되는 완성(원두머니) 주민의 일부가 이곳으로 이주하였다.
- 번던들 : 풍년동 남쪽에 있던 들. 원두머리(완성)에서 부르는 이름.
- 벼룩재 : 풍계리 동쪽 배뜸에서 새뜸으로 통하는 낮은 고개.
- 복주개봉 : 풍계리의 동쪽 아미산의 북쪽 끝 봉우리. 도화담리와 부여군 외산면과 경계한다. 높이 638.5m 이다.
- 비끼내 : 풍계리 북쪽 미산면 도화담리, 성주면 개화리의 접경에 있는 내. 내의 흐름 방향이 이 구간에서 비껴 흘러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 빈장산 : 풍년동과 완성(원두머니) 마을 사이에 있는 산. 높이 177.0m이다.

- 빈정산 : 빈장산의 다른 이름.
- 산수골 : 풍계리 북쪽에 서쪽으로 난 큰 골짜기. 큰고랑이라고도 부른다. 경주 이 씨네 산소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 산제골 : 옛 풍년동 마을 서쪽 골짜기. 과거에 산제를 지내던 산제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산제당 : 옛 풍년동 마을 서쪽 산제골의 북쪽 산자락에 있었다. 건물은 없었고 신목으로 참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1930~1940년대에도 제를 지내지 않았다고 한다.
- 새내들 : 옛 풍년동 마을 동쪽, 하천과 도로로 둘러싸였던 넓은 들. 도화담교 위쪽의 새내보에서 물을 댔다.
- 새들 : 옛 풍년동 남쪽에 있던 들. 풍년동에서 부르는 이름.
- 새뜸 : 옛 풍년동 마을 동쪽에 있던 작은 마을.
- 새보 : 용연보의 다른 이름.
- 새절골 : 적시골 상부에서 남쪽으로 뺀 골짜기.
- 서낭당이 : 새내들 안, 새내보 물이 통하는 길옆에 있었다. 돌무더기가 있었고 신수(神樹)로는 수유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 석정보 : 돌정자보의 다른 이름.
- 송가바위 : 배뜸 동쪽 적시골 안에 있는 큰 바위.
- 송이바위 : 풍계리 북쪽 산수골 서쪽 정상부에 있는 바위.
- 심전보 : 완성(원두머니) 마을과 배뜸 마을 북쪽 벼룩재 서쪽에 있던 보. 용수리의 심전들에 물을 댔다. 보가 깊고 물이 많아 물고기가 많았다. 원두보담이라고도 하였다. 옛날 이곳에서 장수가 빠져죽었다는 전설이 있다.
- 아래뜸 : 완성(원두머니) 마을의 동쪽 부분. 마을의 가운데로 급류의 시냇물이 흐른다. 모두 수몰되었다.
- 아래뜸 : 풍년동 마을의 남쪽 부분. 수몰되었다.
- 아미산 : 미산면 풍계리, 용수리, 평나리 동쪽에 있는 높은 산. 부여군 외산면과 경계한다.
- 액개골 : 완성(원두머니) 마을 서쪽 큰골의 입구에서 남쪽으로 뺀 작은 골짜기.
- 여수골 : 새뜸 북쪽에서 동쪽으로 향한 골짜기.
- 완성(完城) : 풍계리의 남쪽 마을. 계곡의 입구에 있는 큰 마을이다. 과거에는 원두머니로 불렸으며 원침(元浸)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원침이란 말이 좋지 않다고 하여 근래 완성(完城)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1960년대 풍계 2구 중 1구의 이름이기도 하다. 대부분 마을이 수몰되었다.

- 완성교(完城橋) : 완성(원두머니) 과 배뚝을 이었던 다리. 원래는 다리 남쪽에 징검다리를 놓아 다녔었다.
- 용못 : 용연보 위에 있던 못.
- 용바위 : 용연보 위에 있던 바위.
- 용연보 : 풍계리 북쪽 산수골과 도화담리 사이에 있는 보. 집앞들보라고도 한다. 풍년동 앞에 물을 댔다.
- 원두머니 : 완성(完城) 마을의 순수 우리말 이름. 원침(元沈)으로 불리다가 완성(完城)으로 불리게 되었다.
- 원두보담 : 심전보의 다른 이름.
- 원침(元沈) : 완성 마을의 과거 이름. 고을 현감이 마을 앞에서 빠져 죽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곳의 원래 이름인 원두머니의 한자식 표기인 것으로 보인다.
- 위뚝 : 완성(원두머니) 마을의 서쪽 부분. 수몰되었다.
- 인굴 : 산수골(큰고랑)의 윗부분을 부르는 이름. 서남쪽으로 향해 있다.
- 장고개 : 완성(원두머니) 마을 서쪽 산꼭대기. 이곳을 통하여 웅천장으로 통했다.
- 장아너덜 : 배뚝 동쪽 적시굴 북쪽에 있는 산 능선. 능선을 따라 바위너덜이 길게 이어져 장아너덜이라고 불린다.
- 적수굴 : 적시굴의 다른 이름.
- 적시굴 : 풍계리 남쪽 배뚝의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를 통칭한다. 옛날 적군의 시체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줍방내 : 풍계리 동쪽 여수골 앞에 있던 들.
- 중뚝 : 풍년동 마을의 중심 부분. 과거에는 부르지 않았고 근래부터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수몰되어 마을을 북쪽으로 옮겼다.
- 중립산 : 산수골의 북쪽 산기슭. 임진왜란 때 낙향한 경주 이 씨가 이곳에 살았고 그 집자리에 아직까지 대밭이 남아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쥐상오 : 완성(원두머니)의 서쪽, 강깃날의 최고 높은 봉우리. 쥐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진상고개 : 풍년동 마을에서 웅천읍 평리, 성주면 개화리 쪽으로 통하는 고개.
- 진상골 : 풍년동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집앞들 : 풍년동 마을 바로 앞에 있던 들. 용연보에서 물을 댔다.
- 집앞들보 : 용연보의 다른 이름. 풍년동 앞 들에 물을 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 큰고랑 : 산수골의 다른 이름.
- 큰골 : 완성(원두머니) 마을 서쪽으로 난 큰 골짜기.

- 콩깍이 : 완성(원두머니) 마을 서쪽 큰골의 중간에서 남쪽으로 뻗은 골짜기. 액개골과 가는골 사이에 있다.
- 풍계1리 : 풍년동 지역. 1반 위뜸, 2반 중뜸, 3반 아래뜸.
- 풍계2리 : 완성 지역. 1반 아래뜸, 2반 위뜸.
- 풍년(豊年) : 1960년대 풍계 2구(豊年,完城) 중 1구.
- 풍년교 : 풍년동으로 통했던 다리. 과거에는 돌을 쌓고 나무를 엮어 걸친 쉼다리였으나 근래 시멘트로 건설하였다. 다리의 옆에는 다리 건설에 공헌한 전 국회의원 최종성의 비가 1972년에 건립되어 있었다.
- 풍년동(豊年洞) : 풍계리의 중심 마을이다. 마을의 대부분이 수몰되었고 일부는 마을 북쪽의 뒷골과 산수골 사이의 산사면으로 이주하였다. 골뜸, 중뜸, 아래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경주 이 씨가 세거하였다.
- 형제봉 : 새뜸 동북쪽에 있는 봉우리. 도화담과 경계한다.
- 호룽골 : 배뜸 동쪽의 적시골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



벼룩재(1995)



완성 마을 입구(1995)



완성 마을(1995)



풍년동 입구(1995)

14. 풍산리(豊山里)

원래 남포군(藍浦郡) 심전면(深田面)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신모리

(新茅里), 신평리(新豊里) 일부를 병합하여 풍산리라 해서 보령군 미산면에 편입하였다.

- 가자굴재 : 밧주쟁이에서 가자굴로 통하는 고개. 밧주쟁이 남쪽의 가자굴로 통하는 골짜기를 칭하기도 한다.
- 각시봉말랭이 : 참사골 양지뜸 북쪽에 있는 250.0m 산봉우리. 삼계리와 경계한다.
- 갓골 : 갓골 안에 있는 마을.
- 갓골 : 풍산리의 서쪽 끝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 대농리와 경계한다.
- 갓굴재 : 밧주쟁이에서 갓골로 통하는 고개.
- 거북바위 : 방구바위 위에 놓여있던 바위. 두드리면 쇳소리가 났다고 한다. 누군가가 소달구지에 신고 갔다고 한다.
- 공판고랑 : 은굴의 서쪽에 있는 작고 평평한 골짜기. 옛날 나무꾼들이 공을 치던 곳이라고 한다. 밭으로 이용된다.
- 과굴 : 함박굴에서 뒥편 마을 쪽으로 뻗은 작은 골짜기.
- 덩풀머리 : 밧주쟁이의 다른 이름.
- 동산절재 : 주쟁이에서 보드맥이, 부드러운굴을 통하여 동산절로 넘어가는 고개.
- 동편(東便) : 뒥편의 표준 말.
- 뒥편 : 주쟁이 마을의 동쪽 끝에 있는 마을.
- 두루굴 : 안주쟁이 남쪽의 골짜기. 두리봉의 밑이다.
- 두리봉 : 안주쟁이 남쪽에 있는 213.0m 산봉우리. 판교면 무량굴과 경계한다.
- 매봉재 : 주쟁이 뒥편 마을의 남쪽에 있는 230.3m 봉우리. 서천군 판교면과 경계.
- 모리굴 : 참사골 음지뜸과 양지뜸 사이에 있는 큰 골짜기 아랫부분. 탁굴의 아래쪽.
- 모리재 : 참사골 동북쪽 모리굴에서 부여군 옥산면 중량리로 통하는 고개. 홍산장을 보러 다닐 때 넘던 고개이다.
- 모호치(暮虎峙, 모리지) : 모리재의 한자 표기 <1911, 朝鮮地誌資料>
- 무량굴재 : 주쟁이 남쪽 두루굴에서 서천군 판교면 무량굴로 넘어가는 재.
- 밧주쟁이 : 주쟁이 마을의 서쪽 마을. 풍산리 마을 회관과 마을 창고가 있다.
- 방구바위 : 밧주쟁이 북쪽 입구에 있던 바위. 둥그런 바위인데 위에 거북바위가 올려져 있었고 옆에도 바위가 놓여 있었다. 농부들이 설참에 때것(새참)을 먹던 곳이다. 거북바위는 누군가가 실어가고 나머지 바위는 경지정리할 때 땅속에 묻었다.
- 방구바위들 : 밧주쟁이 북쪽에 있는 들. 방구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방맹이재 : 밧주쟁이에서 방맹이 산을 통하여 가자굴 가로고개로 통하는 고개.
- 백호날 : 풍산리 북쪽, 사기장굴과 은굴 사이에 있는 산능선.

- 번던 : 모리굴의 동북쪽 탁굴의 아래쪽에 있는 평평한 부분.
- 보드맥이 : 부드락굴과 대농리 문두실 사이에 있는 작은 골짜기. 많은 밭이 있다.
- 부드락굴 : 풍산리 서북쪽 사기장굴 서쪽 골짜기. 주로 밭으로 이용된다.
- 부서티재 : 부서티재의 다른 이름.
- 부서티재 : 참사골 음지뜸에서 부여 옥산면 대덕리로 통하는 고개. 도로가 포장됨.
- 빈대밭 : 갯골과 밧주쟁이 사이에 있는 밭. 산능선의 끝 부분이다.
- 사기장굴 : 풍산리 북쪽 백호날과 부드락굴 사이의 골짜기.
- 선천(仙泉) : 참사골의 한자 표기. 1960년대 풍산 2구 중 1구.
- 세집매골 : 은굴의 동북쪽 각시봉 말랭이로 난 골짜기.
- 솔모쟁이 : 안주쟁이 앞 들. 안주쟁이와 은굴 사이에 있다.
- 수박구데기 : 뽕편 마을과 함박굴 사이로 내민 산줄기에 있는 골짜기. 은굴의 맞은 쪽에 있다. 비교적 좁은 골짜기이다.
- 신랑봉 : 풍산리 북쪽, 각시봉말랭이 서쪽에 있는 산 봉우리. 높이 226.6m이다.
- 신모리(新茅里, 참시골) : 풍산리 참사골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신평(新豊) : 주쟁이의 옛 이름.
- 신평리(新豊里, 주정니) : 풍산리 주쟁이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안주쟁이 : 주쟁이의 동쪽 마을.
- 안주쟁이재 : 밧주쟁이에서 안주쟁이로 통하는 고개.
- 양지뜸 : 참사골 북쪽 부분에 있는 마을.
- 양지뜸모랭이 : 은굴에서 양지뜸으로 가는 모롱이. 지망산의 남쪽이다.
- 옛마지기들 : 안주쟁이 앞 들. 방구바위들과 솔모쟁이 사이이다.
- 옥녀봉 : 풍산리 동북쪽 옥현리와의 경계가 되는 봉우리. 높이 367.9m이다.
- 은굴 : 풍산리 마을 북쪽에 있는 마을.
- 은굴모랭이 : 사기장굴에서 은굴로 가는 모롱이.
- 은적굴 : 안주쟁이와 밧주쟁이 사이의 산줄기에 나 있는 작은 골짜기.
- 음지뜸 : 참사골의 남쪽 부분. 참샘이 있다.
- 작은탁굴 : 탁굴의 서쪽 골짜기.
- 잣말재 : 부서티재의 다른 이름.
- 주쟁이 : 풍산리 남쪽 마을. 밧주쟁이, 안주쟁이, 뽕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지망산 : 참사골 양지뜸 마을과 은굴 사이에 있는 산이다.
- 참사골 : 풍산리 마을 동쪽에 있는 마을. 참샘이 있어서 참샘골 또는 참사골로 불린다고 한다. 양지뜸과 음지뜸으로 구성된다.

- 참샘 : 참사골 음지뜸에 있는 샘. 물이 여름에는 차고 겨울에는 따뜻하며, 가물수록 더 많은 물이 나온다고 한다.
- 참샘골 : 참사골의 다른 이름.
- 큰탁굴 : 탁굴의 동쪽 골짜기. 옥녀봉으로 오르는 골짜기이다.
- 탁굴 : 모리굴의 북쪽 골짜기. 큰탁굴과 작은탁굴로 나누어진다
- 풍산(豊山) : 1960년대 풍산 2구 중 1구.
- 함박굴 : 안주쟁이와 참사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 가옥은 없고 논과 밭으로 이용된다. 넓은 골짜기이다.
- 함박굴재 : 주쟁이 뒤편 마을에서 함박굴로 넘어가는 고개.
- 흑굴 : 큰탁굴과 작은탁굴 사이에 내민 산줄기.



부시티재(협동재, 2008)



참사골 참샘(2008)

도움말 주신 분(1996년 현재)

조남건(52)	미산면	남심리	317	발악매	이근춘(55)	미산면	삼계리	27
백낙수(65)	미산면	남심리	102	심동(음산뜸)	백맹현(56)	미산면	옥현리	555-2
박영순(69)	미산면	내평리	57		임동수(70)	미산면	옥현리	255
유영운(57)	미산면	내평리	181		임병재(70)	미산면	용수리	34
김하수(65)	미산면	내평리	54		이용만(42)	미산면	용수리	84
임노순(43)	미산면	늑전리	103		김성기(45)	미산면	용수리	579
이병화(68)	미산면	도흥리	425	여흥	백이호(56)	미산면	용수리	529
황관하(68)	미산면	도흥리	320	도장굴	이용희(46)	미산면	용수리	647
십대식(60)	미산면	도흥리	14	자명	이중수(55)	미산면	은현리	60-1
송기홍(55)	미산면	대농리	212		임중형(79)	미산면	은현리	378
이중제(77)	미산면	도화담리	290-1		송기상(62)	미산면	평라리	20-2
전일찬(71)	미산면	도화담리	170-3		박중상(45)	미산면	풍계리	57 (완성)
오동연(61)	미산면	봉성리	223		이중형(64)	미산면	풍계리	488 (풍년동)
백승원(52)	미산면	삼계리	495		이기철(67)	미산면	풍산리	218
박일배(51)	미산면	삼계리	251		백윤기(64)	미산면	풍산리	357
조병제(71)	미산면	삼계리	378					